

2025
수원
서베이

한눈에 보는 수원
2025

수원



한눈에 보는 수원 2025

2024년 대비 개선을 보인 영역	04
2024년 대비 유지되거나 악화를 보인 영역	05

1. 수원시민의 행복

수원시민의 행복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08
수원시민은 어떤 생활 환경에 더 만족할까?	10
수원시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11

2. 수원시민의 일상생활

수원시민은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14
수원시민, 주거비 부담을 얼마나 느낄까?	15
수원시민의 이동생활, 만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16
수원시민, 어떤 교통수단에 만족할까?	18
여가시간, 수원시민은 무엇을 하며 보낼까?	20
수원시민의 여가생활, 충분하고 만족스러울까?	22
수원시민의 디지털 생활은?	24
수원시민이 생각하는 AI의 미래는?	25
공원 이용 활동, 그리고 그 만족도는?	26
수원시민은 녹지환경에 만족할까?	28
수원수목원, 방문 경험과 만족도는?	29
수원시민의 대기환경 만족도는?	30
수원시민이 느끼는 환경 문제, 얼마나 심각할까?	31
왜 수원에 살고, 계속 살고 싶을까?	32

C O N T E N T S

3. 사회통합과 사회자본

외로움과 고립, 수원시민은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36
포용도시, 수원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38
수원시민의 사회적 신뢰는?	39
수원시민의 보행 만족도는?	40
수원시민의 안전 위협 요인은?	41

4. 가족과 노년

저출생, 시민은 무엇을 원할까?	44
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일까?	46
노후생활자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48
수원시민은 어떤 노후를 원할까?	49

5. 정책수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 얼마나 될까?	52
수원시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는?	53
4개 구별 관심사는 무엇일까?	54

6. 수원서베이 심층분석

수원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삶, 얼마나 다를까?	58
수원시 1인가구, 세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59
수원시 X세대의 7가지 특성은?	60
수원시 청소년은 행복할까?	61
2025 수원서베이 조사개요	62
2025 수원서베이 조사내용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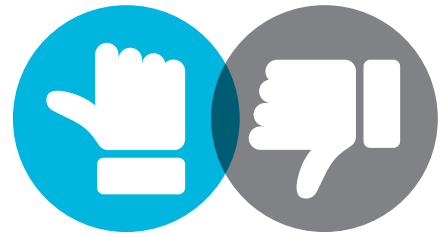
2024년 대비 개선을 보인 영역



△ 개선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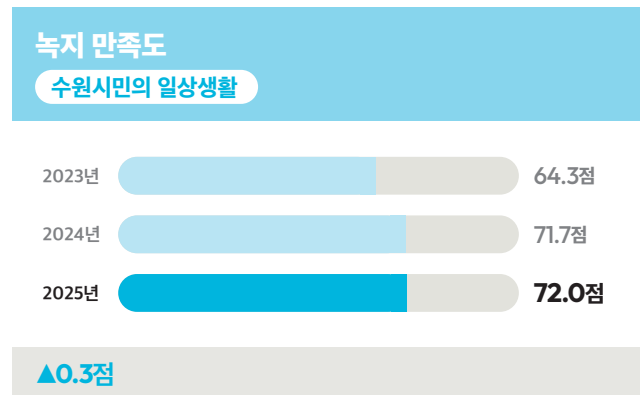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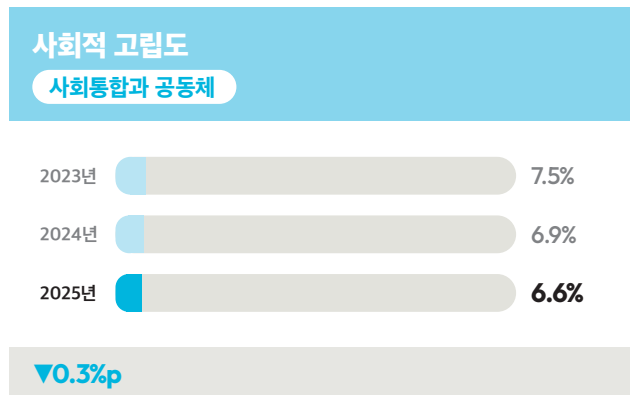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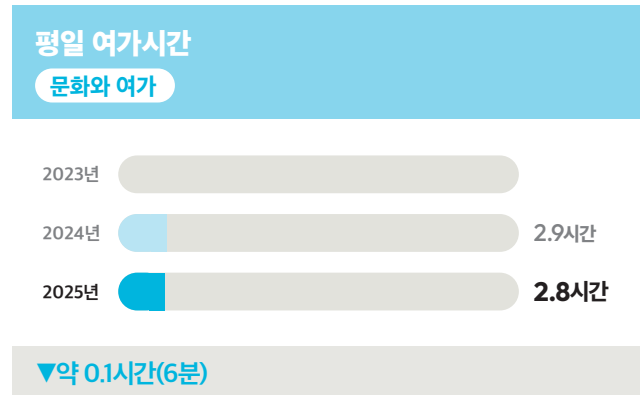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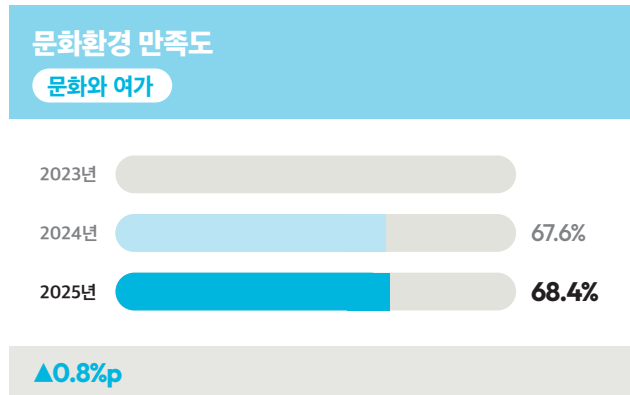


2024년 대비 유지되거나 악화를 보인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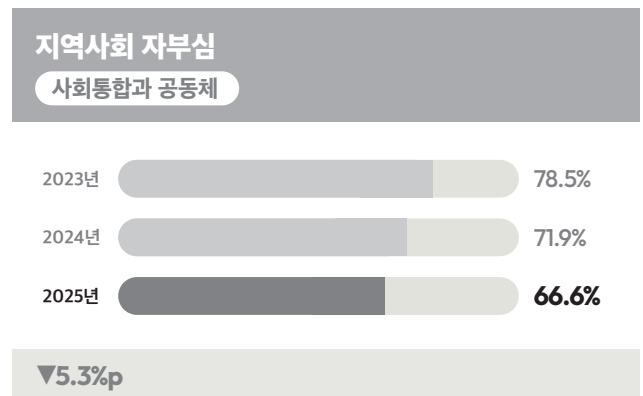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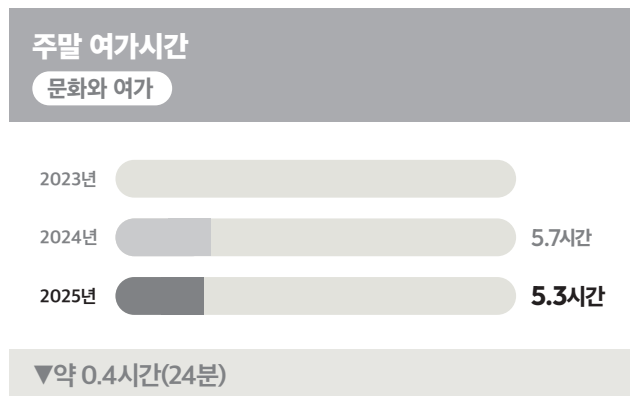
유지 항목

* 유지 항목은 변동폭 ±1%p 이내를 기준으로 함



* 사회적 고립도는 비율이 낮을수록 고립 수준이 낮음을 의미함

하락 항목



1



수원시민의 행복

수원시민의 행복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수원시민은 어떤 생활 환경에 더 만족할까?
수원시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수원시민의 행복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수원시민의 행복지수

*2024년 6.5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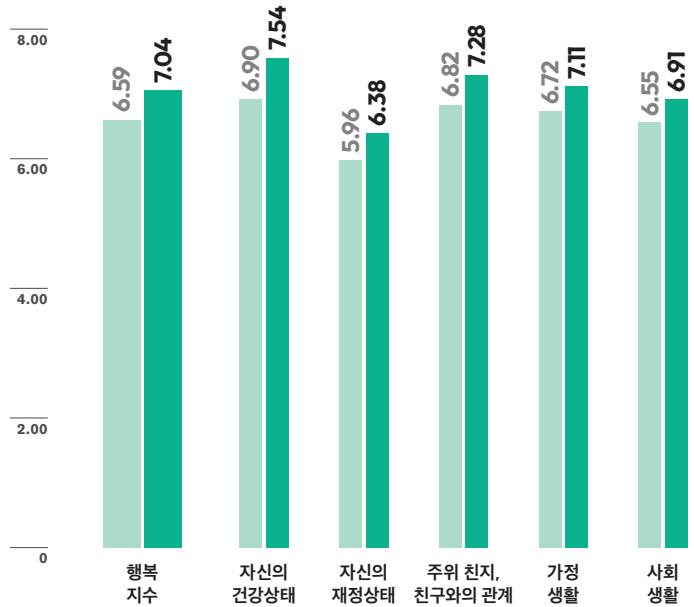
(단위: 점)

■ 2024년 ■ 2025년

(단위: 점)

7.04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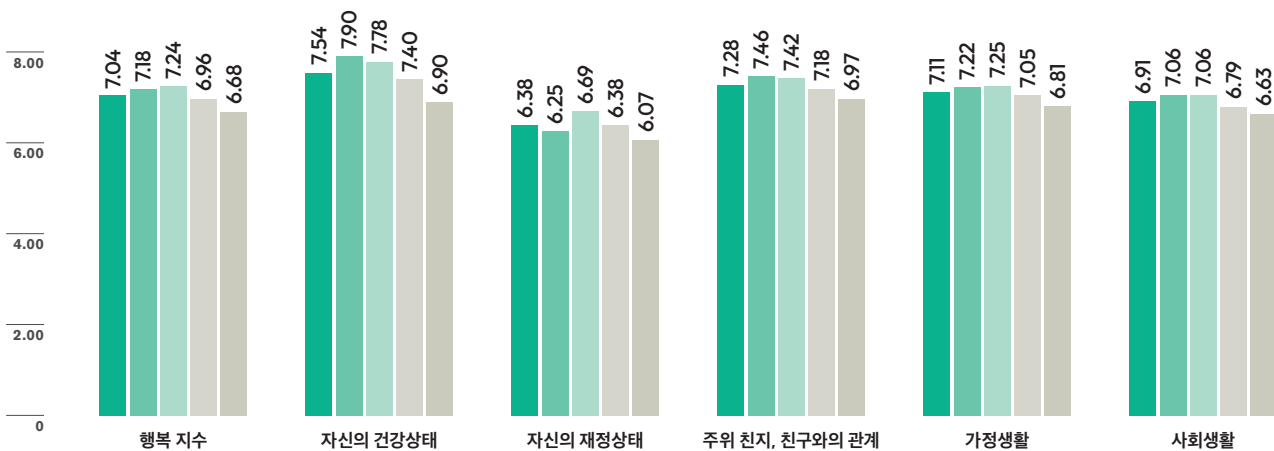
2025년 수원시민 행복지수는 평균 7.04점으로, 전년(6.59점) 대비 상승하였다. 항목별로 보면 '자신의 건강상태'가 7.5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위 친지 및 친구와의 관계'(7.28점), '가정생활'(7.11점)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재정상태'는 6.3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세대별로는 중년층(7.24점)과 청년층(7.18점)의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노년층(6.68점)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세대별 행복지수

■ 전체 ■ 청년 ■ 중년 ■ 장년 ■ 노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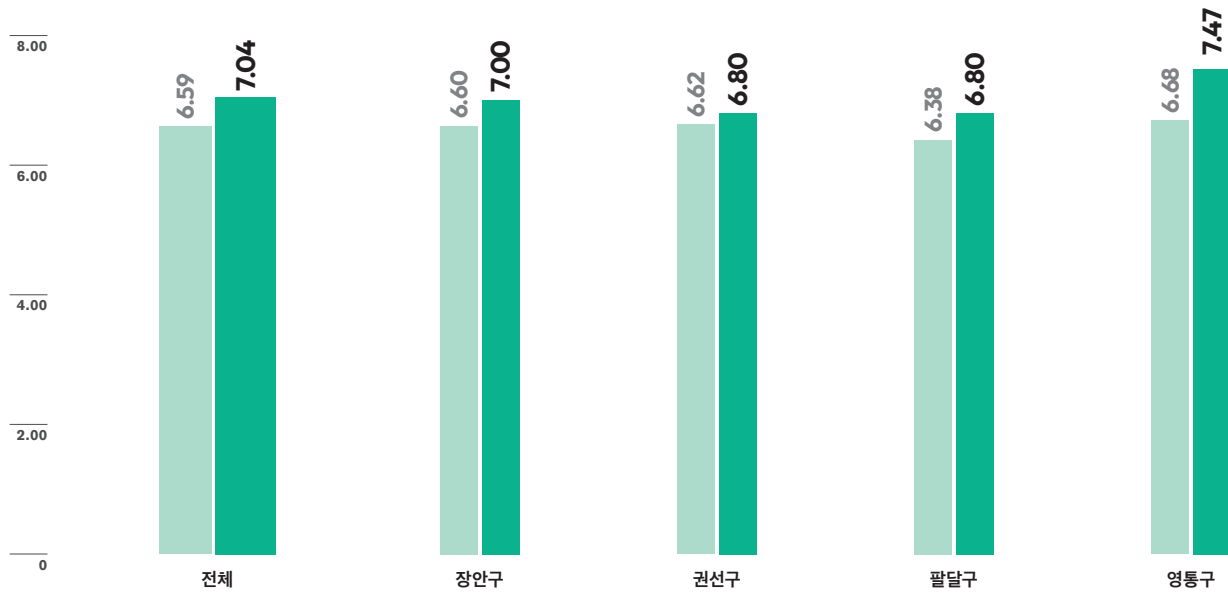


* 주: 행복지수는 5개 행복영역의 평균값, 영역별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 점수(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할 때 10점 평균 점수)

구별 행복지수

2024년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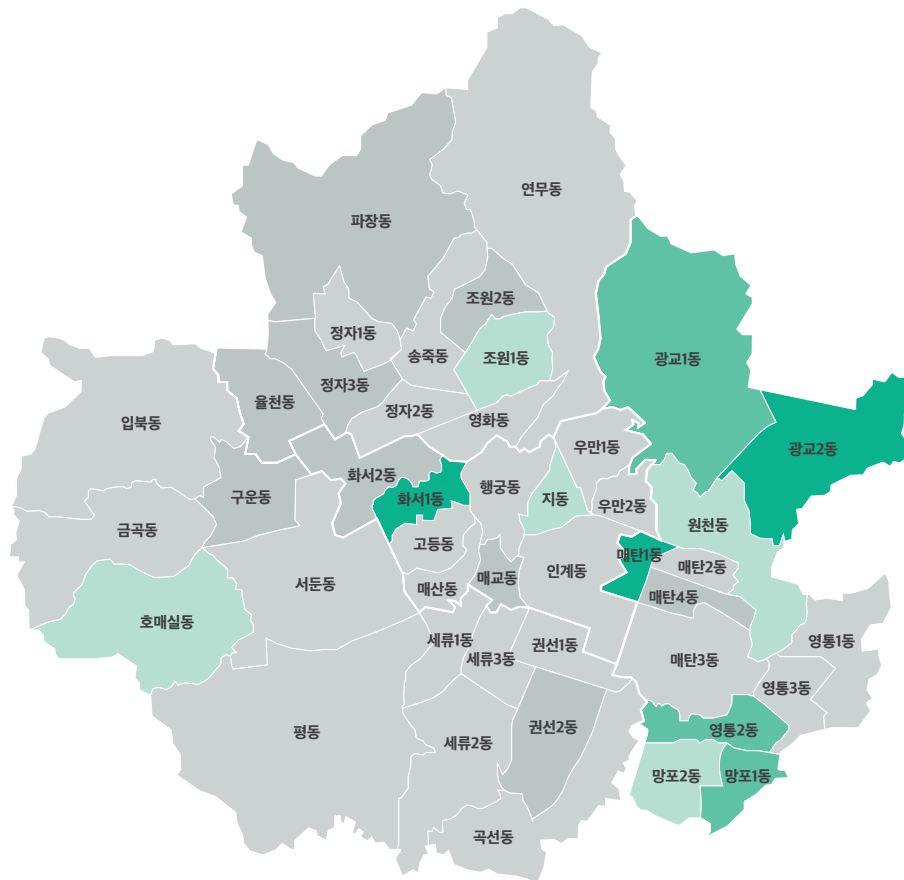
(단위: 점)



동별 행복지수

(단위: 점)

전체
7.04



수원시민은 어떤 생활 환경에 더 만족할까?



전 영역 만족도, 전년 대비 전반적 상승

*2024년 주거, 사회환경 만족도는 2023년 대비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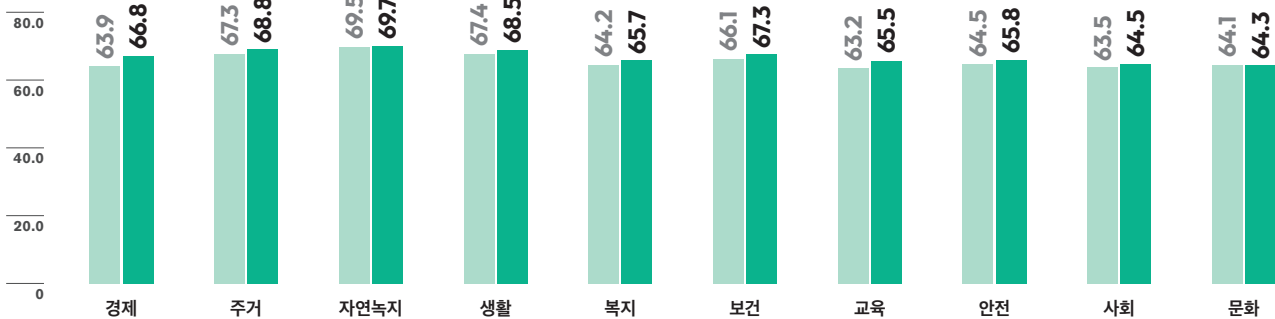


수원시 생활 환경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자연복지'가 6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거(68.8점), 생활(68.5점), 보건(67.3점) 순이었다. 2024년과 비교했을 때, 경제, 주거, 복지, 교육, 안전 등 전 영역에서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2.9점)와 교육(+2.3점)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으며, 자연복지(+0.2점)와 문화(+0.2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구별로는 영통구가 경제(69.0점), 주거(73.3점), 교육(70.7점), 안전(70.7점)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반면, 권선구의 생활 환경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영역별 생활 환경 만족도

■ 2024년 ■ 2025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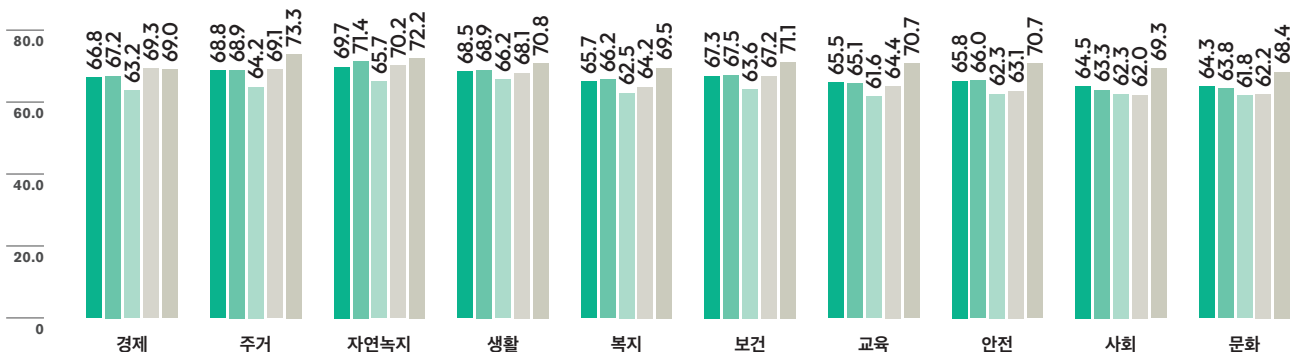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수원시에서 생활하면서 다음의 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응답: 7점 척도(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⑦ 매우 만족한다)의 100점 환산 평균

구별 생활 환경 만족도

■ 전체 ■ 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 ■ 영통구

(단위: 점)



수원시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자부심

*2024년 65.0점

(단위: 점)

63.6 점

팔달구 **65.9** 점

*2024년 권선구 66.4점

40~50년
미만 **66.0** 점

*2024년 68.7점

수원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100점 만점 기준, 평균 63.6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이 66.6%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31.5%)', '느끼지 않는다(1.9%)'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비교하면 평균 점수는 65.0점에서 63.6점으로 1.4점 감소했으며,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도 5.3%p 하락했다. 반면,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7.9%p 증가하여 시민 자부심이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구별로는 팔달구의 자부심 평균 점수가 65.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작년과 유사하게 수원 거주 기간이 길수록 자부심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자부심

■ 느낀다 ■ 보통 ■ 느끼지 않는다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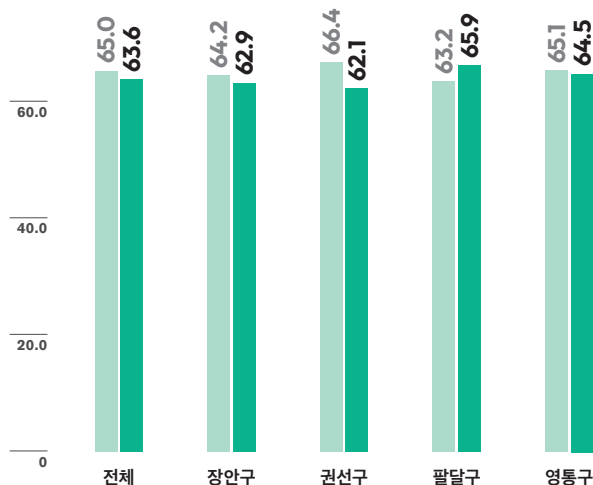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수원시민이러는데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응답: 느낀다(⑤+⑥+⑦ 매우 자부심을 느낀다), 보통(④), 느끼지 않는다(① 전혀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②+③), 7점 척도의 100점 환산 평균

구별 자부심

■ 2024년 ■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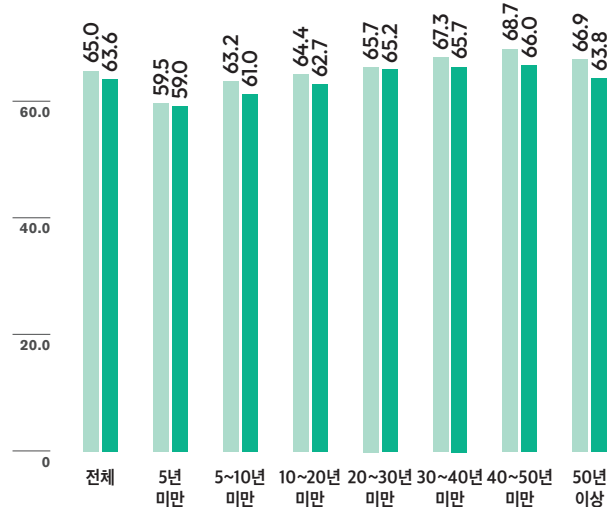
(단위: 점)



수원거주 기간별 자부심

■ 2024년 ■ 2025년

(단위: 점)



2



수원시민의 일상생활

수원시민은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수원시민, 주거비 부담을 얼마나 느낄까?

수원시민의 이동생활, 만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수원시민, 어떤 교통수단에 만족할까?

여가시간, 수원시민은 무엇을 하며 보낼까?

수원시민의 여가생활, 충분하고 만족스러울까?

수원시민의 디지털 생활은?

수원시민이 생각하는 시의 미래는?

공원 이용 활동, 그리고 그 만족도는?

수원시민은 녹지환경에 만족할까?

수원수목원, 방문 경험과 만족도는?

수원시민의 대기환경 만족도는?

수원시민이 느끼는 환경 문제, 얼마나 심각할까?

왜 수원에 살고, 계속 살고 싶을까?

수원시민은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파트 거주 비율

(단위: %)



수원 시민의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64.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립다세대주택(24.8%), 단독주택(8.4%), 주택 외 거주(2.2%) 순이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는 자가(64.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세(26.2%), 보증금 있는 월세(8.7%)가 뒤를 이었다. 보증금 없는 월세 및 사글세는 0.1%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세대별로는 노년(86.0%)과 장년(81.4%)의 자가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청년은 40.6%로 전체 평균(64.3%)을 하회했다. 청년층은 전세(36.0%)와 보증금 있는 월세(22.2%) 비중이 다른 세대에 비교적 높아, 세대 간 주거 점유 형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

■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다세대주택 ■ 주택 외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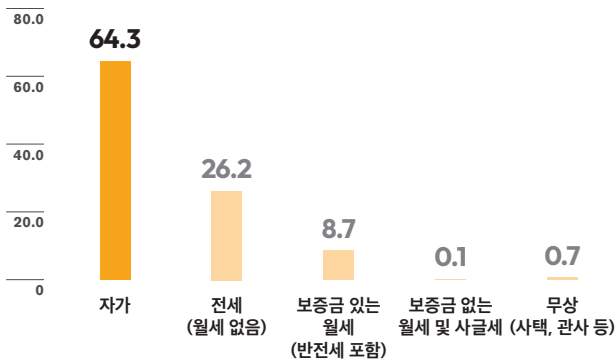
(단위: %)



질문: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택 유형은 무엇입니까?

주택 점유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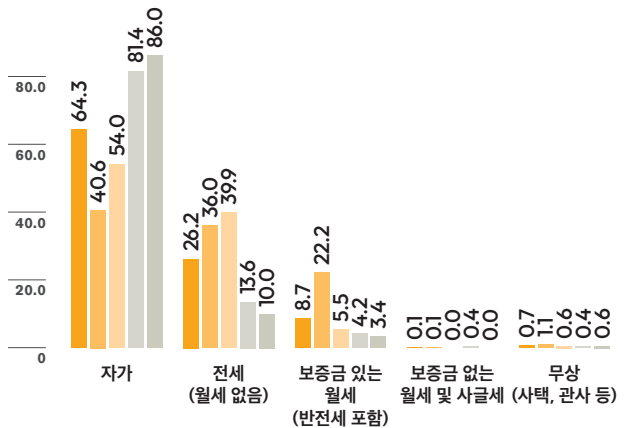
(단위: %)



세대별 주택 점유 형태

■ 전체 ■ 청년 ■ 중년 ■ 장년 ■ 노년

(단위: %)



질문: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수원시민, 주거비 부담을 얼마나 느낄까?



주거비 부담

(단위: %)

50.6%

수원시민의 주거비 부담 수준은 5점 만점 기준 평균 3.4점으로 나타났다. 응답 분포를 보면 ‘그렇다(부담된다)’는 응답이 50.6%로 절반을 넘었으며, ‘보통이다’ 36.0%, ‘그렇지 않다’ 13.3% 순이었다. 세대별로는 중년(53.6%)과 청년(52.6%)에서 주거비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장년(49.2%)과 노년(45.2%)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자가 비율이 낮은 청년층뿐 아니라 중년층에서도 부담 인식이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구별로는 권선구(59.9%)와 영통구(55.5%)에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장안구(35.9%)는 4개 구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구 간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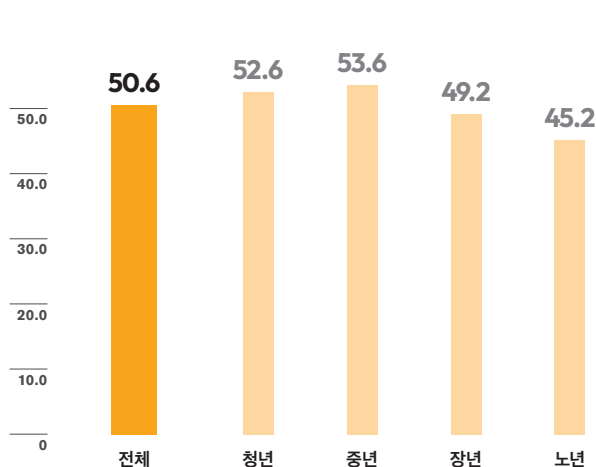


질문: 지난 1년간(2024년 1월 1일~12월 31일) 주거비가 부담스러웠습니까?

응답: 그렇지 않다(① 전혀 그렇지 않다+②), 보통(③), 그렇다(④+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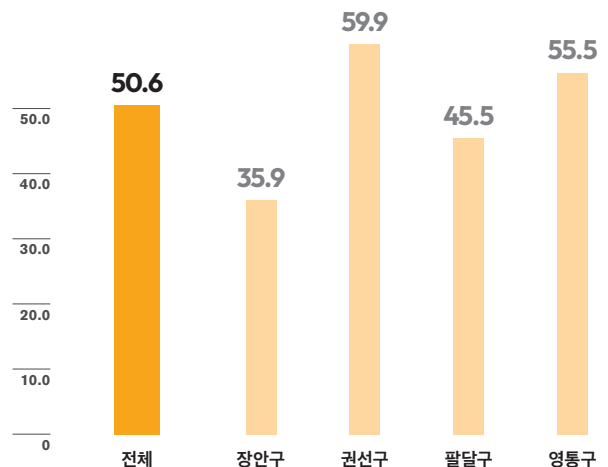
세대별 주거비 부담

(단위: %)



구별 주거비 부담

(단위: %)



수원시민의 이동생활, 만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통근·통학 만족비율

*2024년 69.5%

(단위: %)

77.0%

통근·통학 평균 소요 시간 30.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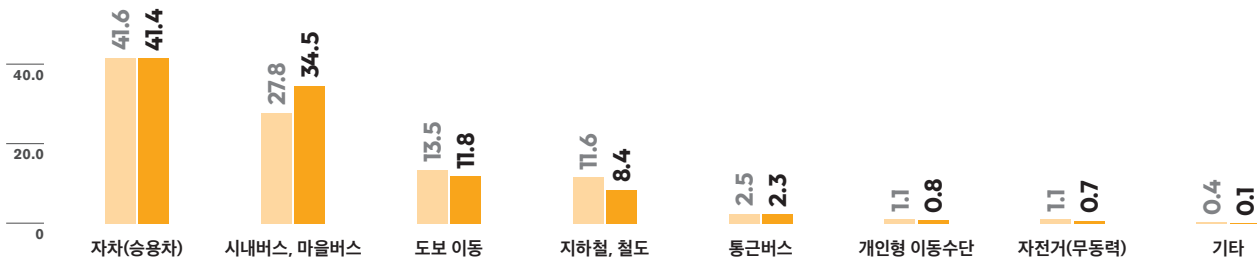
*2024년 36.6분

평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질문한 결과, '자차(승용차)' 이용 비율이 41.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34.5%), '도보'(11.8%), '지하철'(8.4%), '통근버스'(2.3%), '개인형 이동수단'(0.8%), '자전거(무동력)'(0.7%)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자차 이용 비율은 소폭 감소한 반면, 시내버스·마을버스 비율은 증가했다. 수원시민의 84.9%는 통근·통학을 하고 있으며, 주 통근·통학 지역은 '수원 내'가 85.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통근이나 통학을 한다는 응답자들의 평균 소요 시간은 30.3분이며 만족도는 77.0%로, 전년 대비 통근이나 통학시간(36.6분)은 감소하고, 만족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생활의 불편한 점으로는 '도로 혼잡'(26.5%)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중교통 운행횟수 부족'(15.2%), '차내 혼잡'(11.6%) 등을 주된 불편 요인으로 꼽았다.

평상시 주 이용 교통수단

2024년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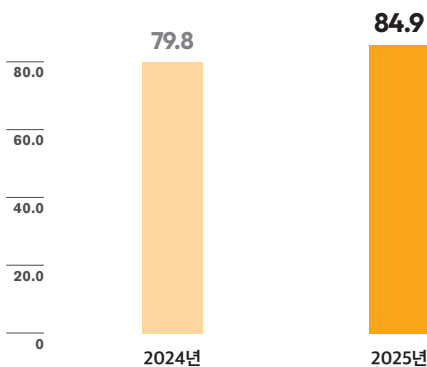
(단위: %)



질문: 귀하는 평소 이동하실 때 주로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주 교통수단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통근·통학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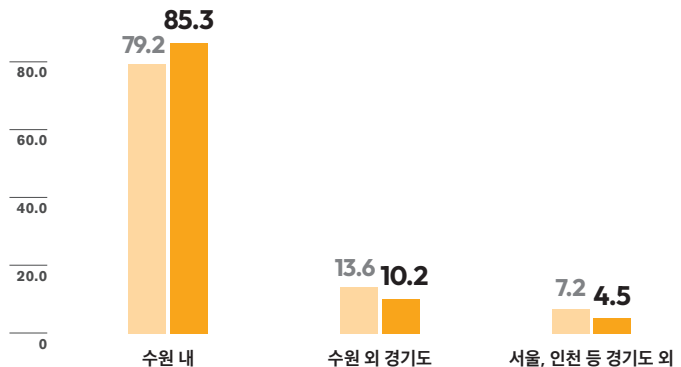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통근이나 통학을 하십니까?
응답: 통근·통학을 한다 응답 비율

통근·통학 지역

2024년 202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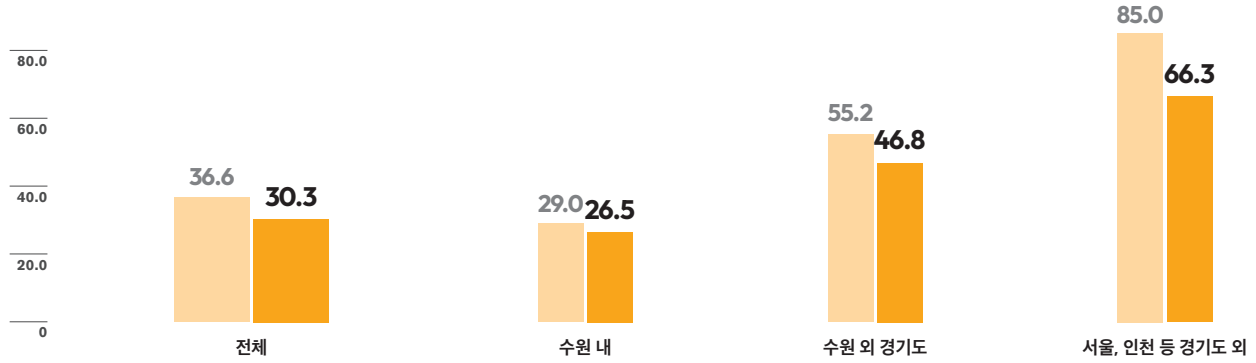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어디로 통근 또는 통학하십니까?
응답: 수원 내(현재 살고 있는 동,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 수원시 내 다른 구 응답 비율의 합)

통근·통학 지역별 통근시간

2024년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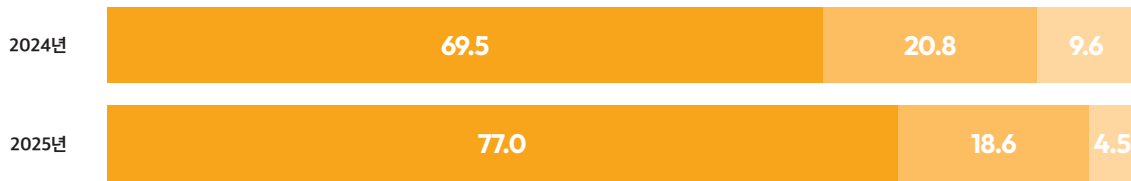
(단위: 분)



통근·통학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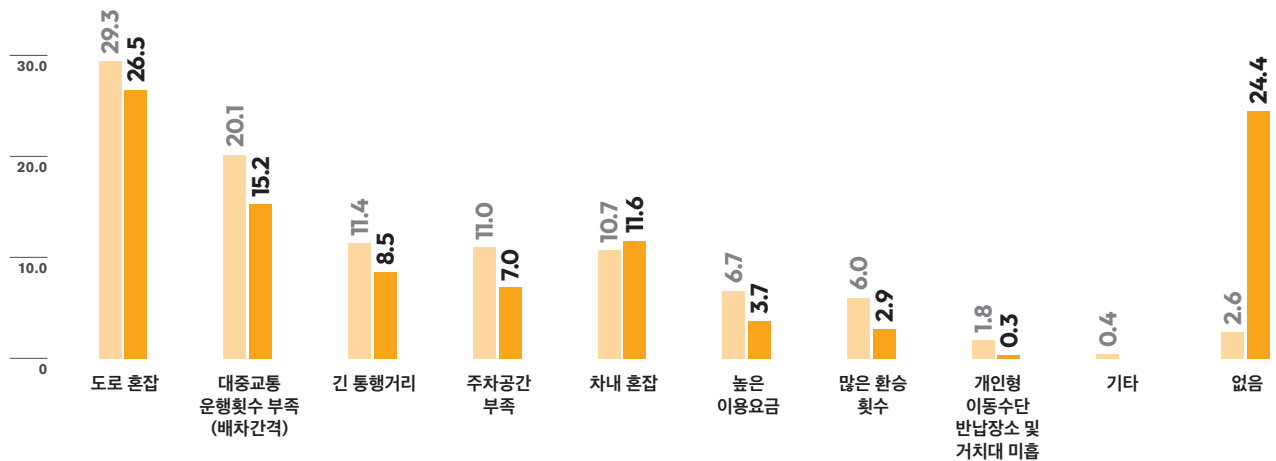


질문: 귀하의 통근·통학 환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응답: 불만족(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②+③), 보통(④), 만족(⑤+⑥+⑦ 매우 만족한다)

통근·통학 시 불편한 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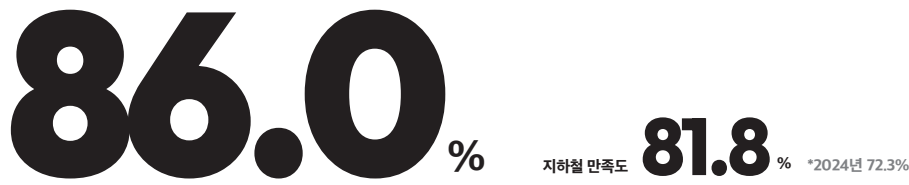
질문: 귀하께서 통근·통학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수원시민, 어떤 교통수단에 만족할까?

버스 만족도

*2024년 79.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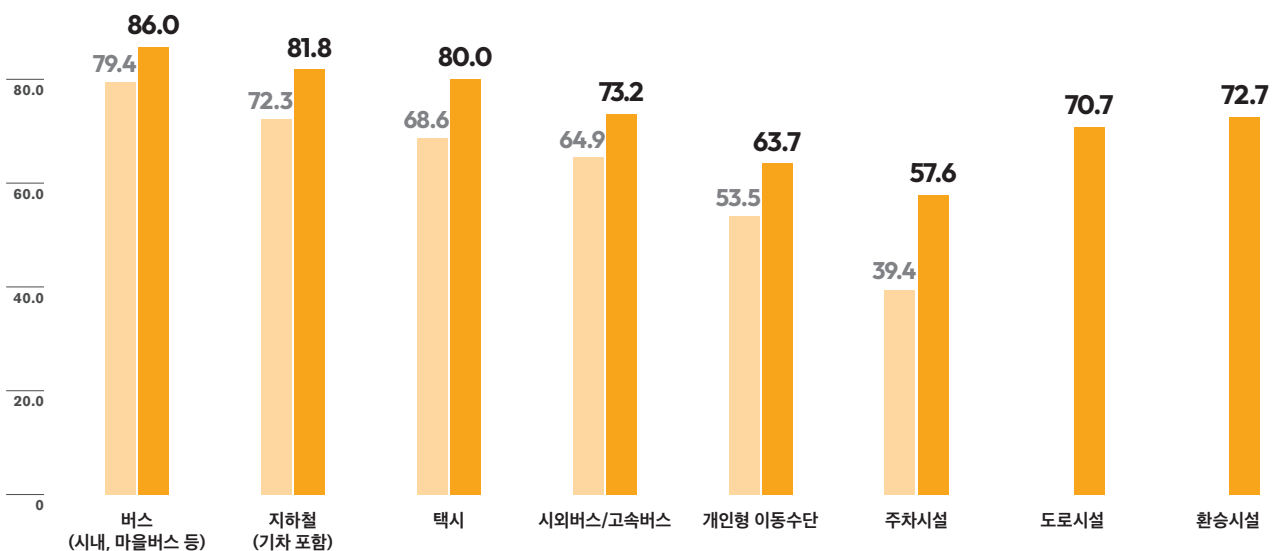


교통수단별 만족 비율은 '버스'가 86.0%로 가장 높았고, '지하철'(81.8%), '택시'(80.0%), '시외버스·고속버스'(73.2%), '환승시설'(72.7%), '도로시설'(70.7%)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상승했으며, 특히 '주차시설', '지하철', '택시'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교통수단별 만족도는 거주 지역 및 생활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버스'에 대한 만족도는 권선구(80.0%)와 서수원생활권(77.3%)에서 낮은 반면, 장안구(92.3%)와 북수원생활권(94.0%)에서 높았다. '주차시설'은 권선구(45.9%)와 서수원생활권(44.3%)에서 낮고, 영통구(69.3%)와 광교생활권(70.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승시설'은 권선구(65.6%)와 서수원생활권(63.5%)에서 낮은 반면, 장안구(79.8%)와 북수원생활권(82.3%)에서 높았다.

교통수단별 만족도

2024년 202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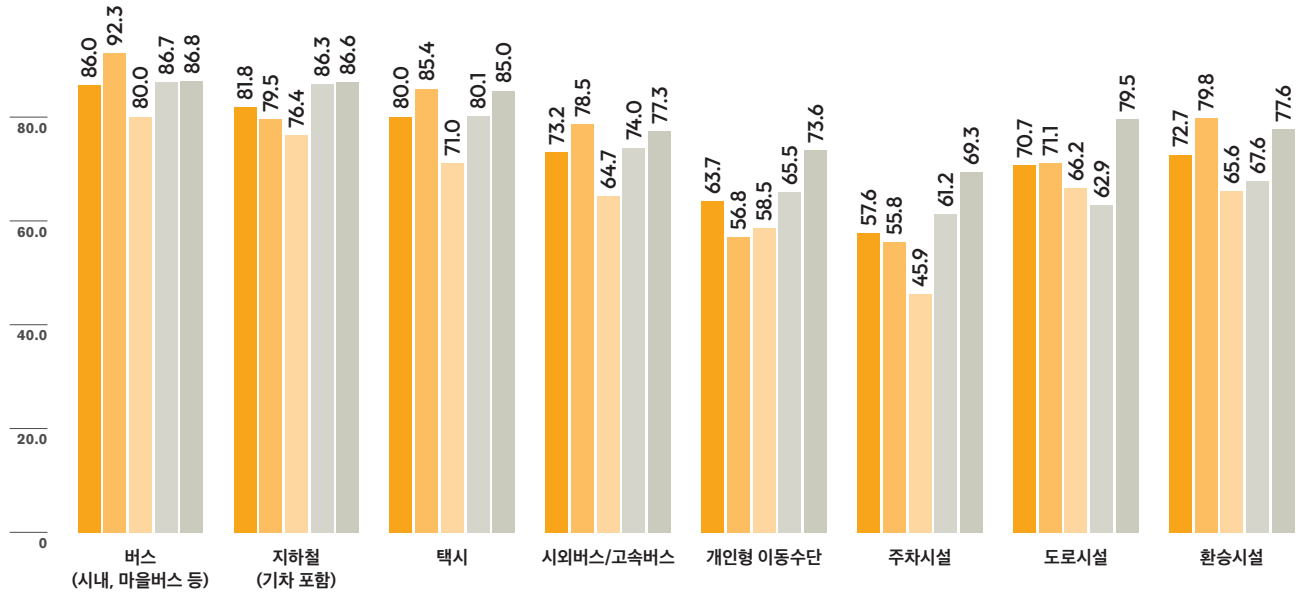
질문: 다음의 수원시 교통수단이나 시설별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응답: 7점 척도(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⑦ 매우 만족한다)의 만족한다(⑤+⑥+⑦ 응답 비율)

구별 교통수단 만족도

전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등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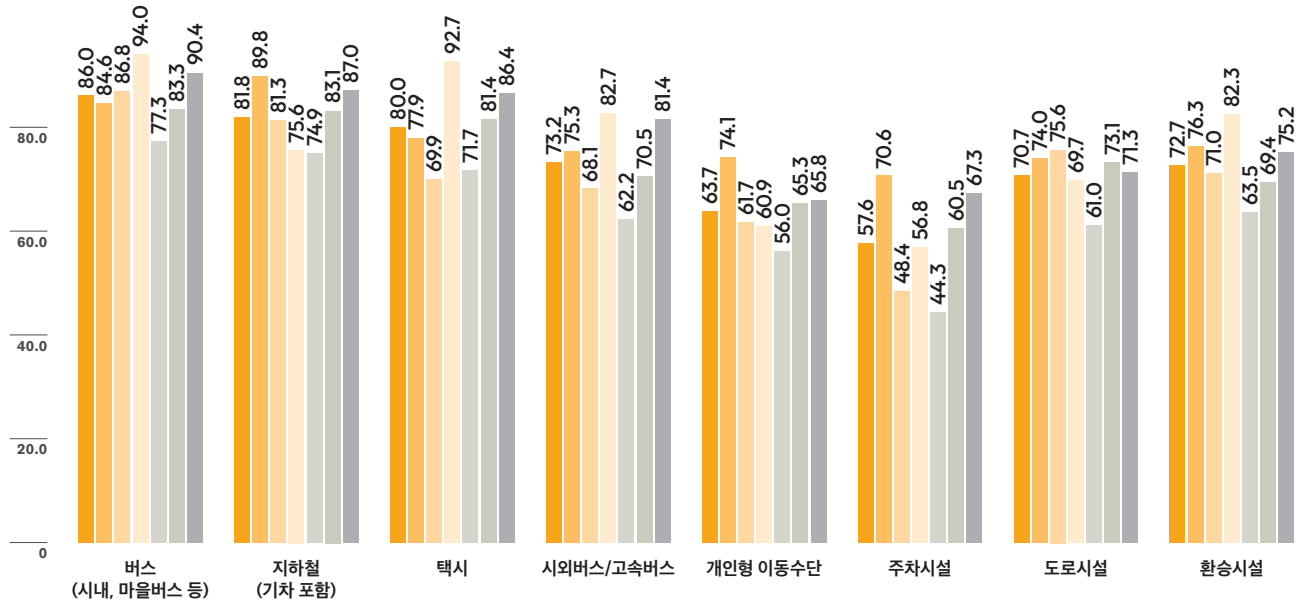
(단위: %)



생활권별 교통수단 만족도

전체 광고생활권 남수원생활권 북수원생활권 서수원생활권 영등생활권 화성생활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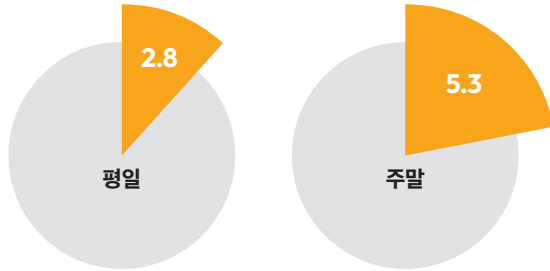


여가시간, 수원시민은 무엇을 하며 보낼까?



평균 여가시간

(단위: 시간, %)
*2024년 평균 여가시간: 평일 2시간 54분(2.9시간), 주말 5시간42분(5.7시간)



평일 **2시간 48분** 주말 **5시간 18분**

여가활동

휴식

*2024년 오프라인 여가활동: 영화관람, 온라인 여가활동: 온라인 게임

수원시내 가장 많이 방문한 여가 공간 공원, 수원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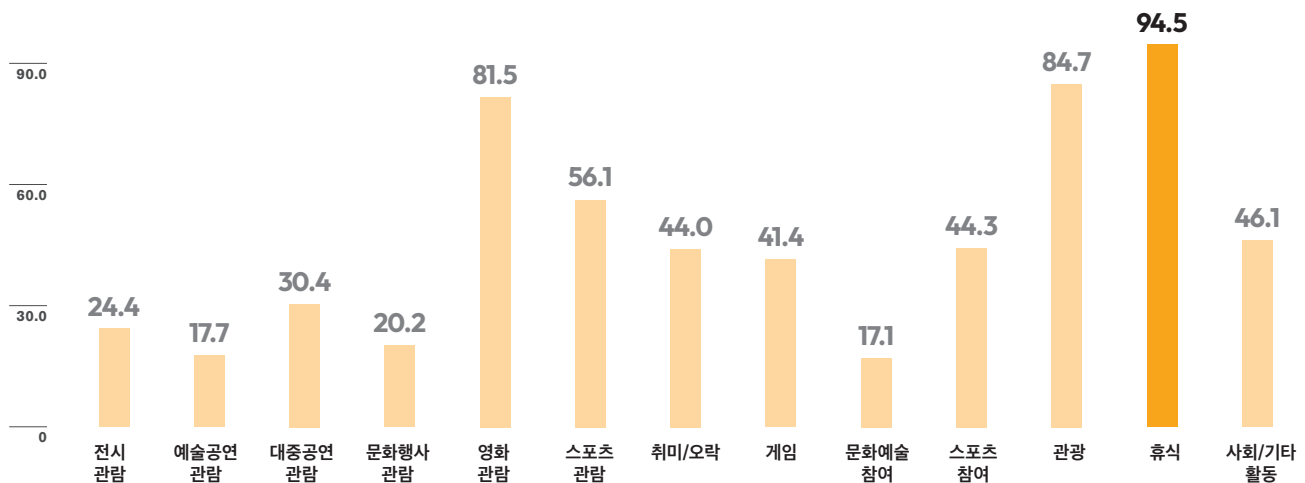
*2024년 수원시내 가장 많이 방문한 여가 공간: 생활권 공원, 수원화성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으로는 '휴식'(94.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관광'(84.7%), '영화 관람'(81.5%), '스포츠 관람'(56.1%), '사회·기타 활동'(46.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5년 수원시민이 가장 많이 방문한 여가 공간은 '공원'(51.7%)이었으며, '수원화성'(51.3%), '차 없는 거리(나혜석거리·수원역로데오거리)'(49.2%), '아파트 내 공터'(39.5%), '재래시장'(37.1%) 순으로 나타나 일상 생활권 내 여가 공간 이용이 두드러졌다. 여가활동 지역은 '수원시 관내'가 80.4%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서울시'(10.1%), '수원시 이외 경기도'(9.4%)가 뒤를 이었다.

여가활동(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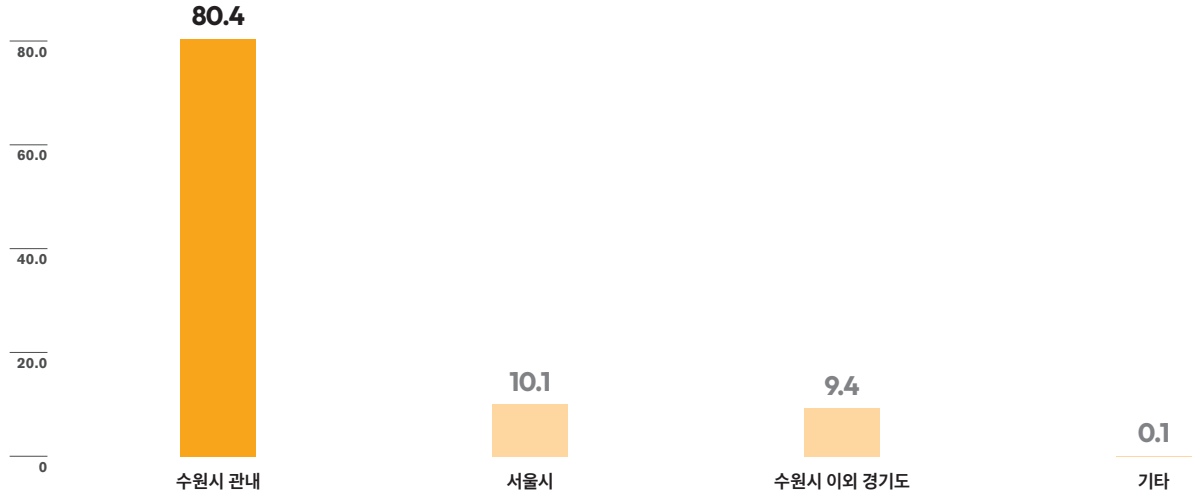
(단위: %)



질문: 귀하는 다음의 여가 활동을 지난 1년간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여가 활동을 하신 방식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오프라인 여가활동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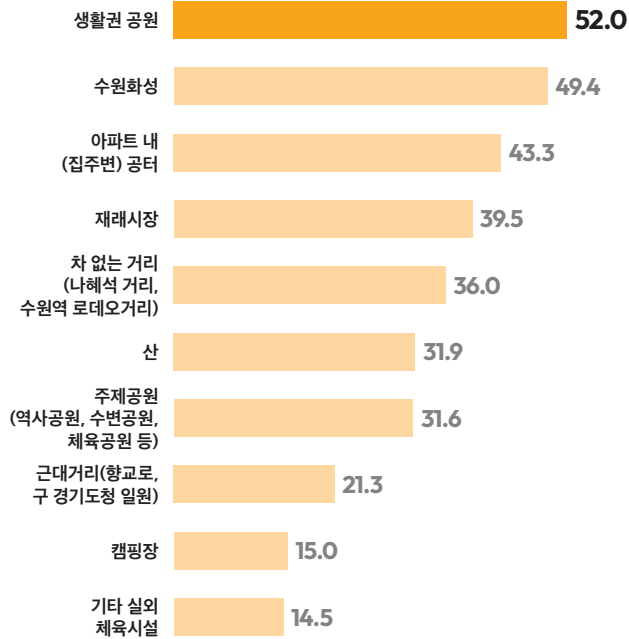
(단위: %)



질문: 귀하는 오프라인 여가활동을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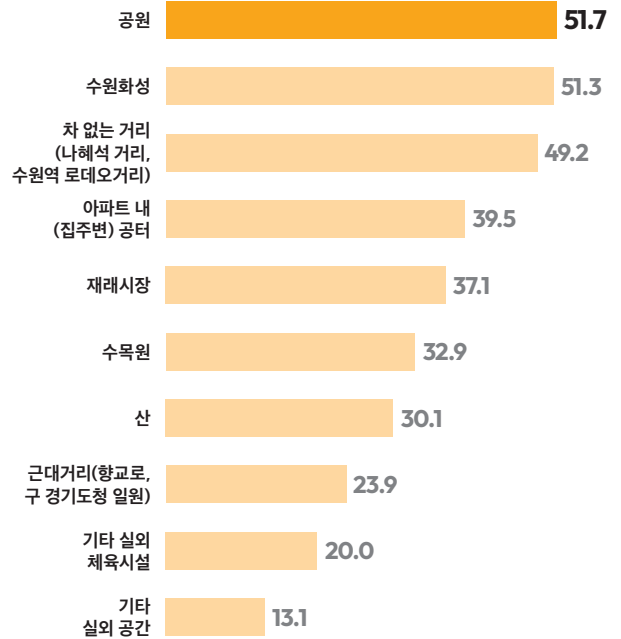
2024년 방문한 실외 여가공간 (중복응답, 상위 10위)

(단위: %)



2025년 방문한 실외 여가공간 (중복응답, 상위 10위)

(단위: %)



질문: 수원 내에서 여가를 위해 방문해본 실외 여가공간은 어디입니까? 방문하신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수원시민의 여가생활, 충분하고 만족스러울까?



여가시간 충분성

(단위: %)

확충되기를 희망하는 여가공간 공원·녹지 시설

주말(휴일 포함)



수원시민의 여가시간 충분성은 평일(56.7점)과 주말(67.0점)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월평균 여가활동 비용은 30.7만 원이었으며, 세부적으로 10~20만 원 미만 지출이 33.0%로 가장 많았다. 세대별로는 '중년'(36.3만 원)이 가장 높고, '노년'(18.3만 원)이 가장 낮아 세대 간 여가 지출의 격차가 확인되었다.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대한 평가는 평균 65.0점으로 전년(59.1점) 대비 5.9점 상승했으며, '그렇다(만족)'는 응답도 53.2%에서 70.9%로 크게 늘었다. 수원시 내 여가생활 만족도(66.4점)는 전반적인 여가생활 평가보다 약간 높았고, 일과 여가생활 균형(61.0점)은 가장 낮았다. 확충을 희망하는 여가 공간으로는 '공원·녹지 시설'(59.6%)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체육 관련 시설'(33.3%), '체육관·체육센터'(26.9%), '공연장'(23.2%) 순으로 나타나 일상 근거리 여가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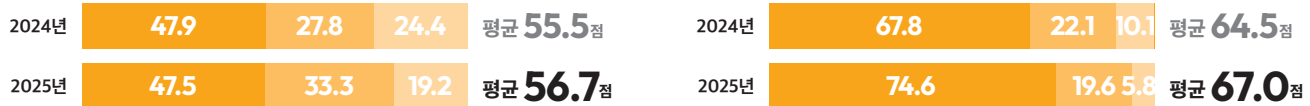
여가시간 충분성

충분 보통 부족

(단위: % 점)

평일

주말(휴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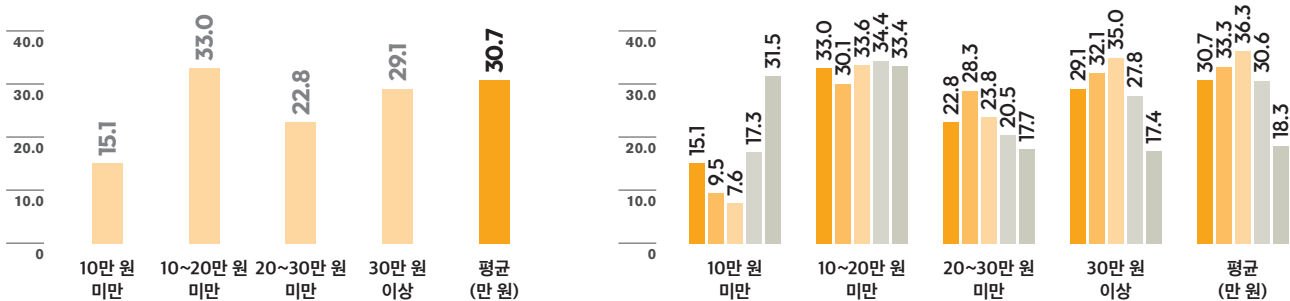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평소 여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일과 주말(휴일 포함) 구분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부족(① 매우 부족하다+②+③), 보통(④), 충분(⑤+⑥+⑦ 매우 충분하다), 7점 척도의 100점 환산 평균

여가활동 비용

(단위: %, 만 원)

세대별 여가활동 비용

전체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단위: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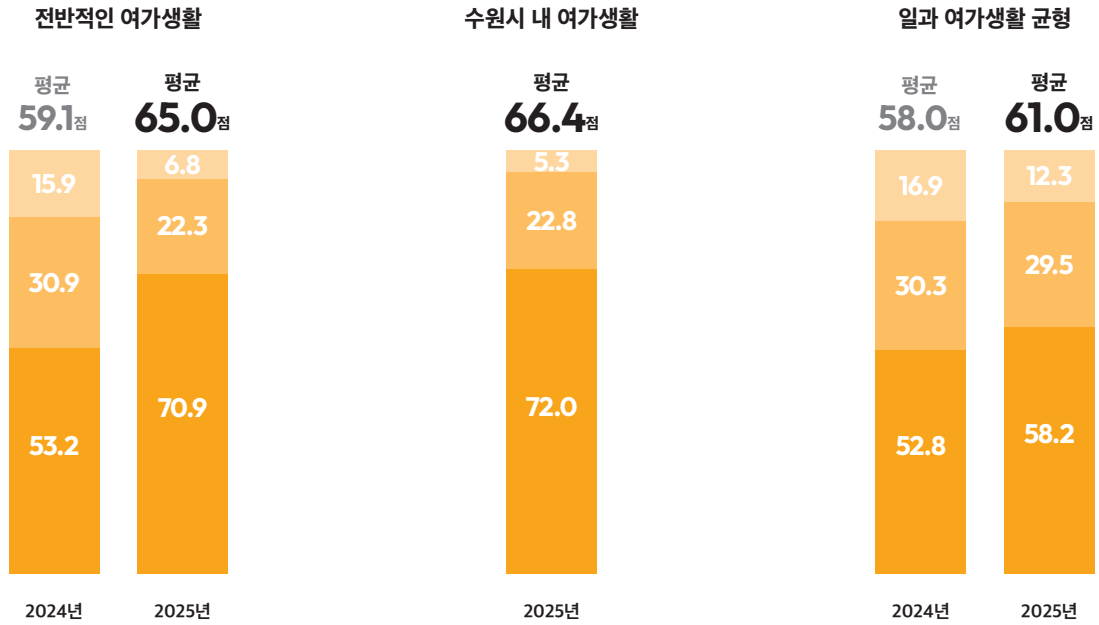


질문: 귀하가 지난 1년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틀어 여가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여가생활 평가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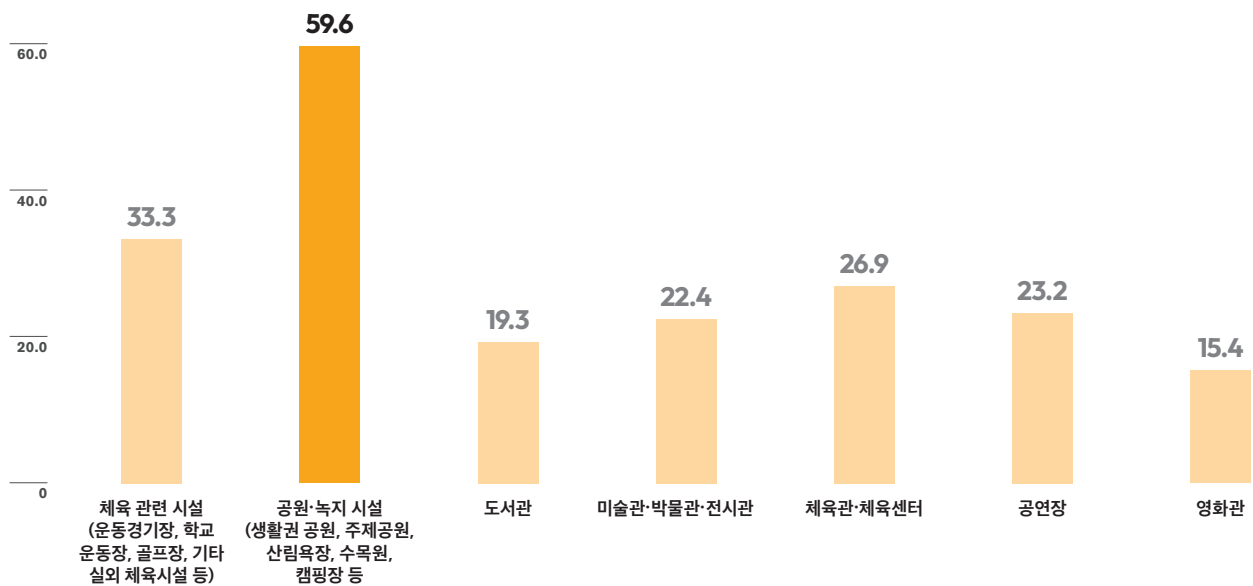


질문: 귀하께서는 참여하신 여가생활과 관련한 아래 의견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응답: 부족(① 전혀 그렇지 않다+②+③), 보통(④), 충분(⑤+⑥+⑦) 매우 그렇다, 7점 척도의 100점 환산 평균

확충되기를 희망하는 여가공간(1+2순위)

(단위: %)



질문: 귀하께서는 수원시 내에 어떤 실내 또는 실외 공간이 더 확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시민의 디지털 생활은?



디지털기기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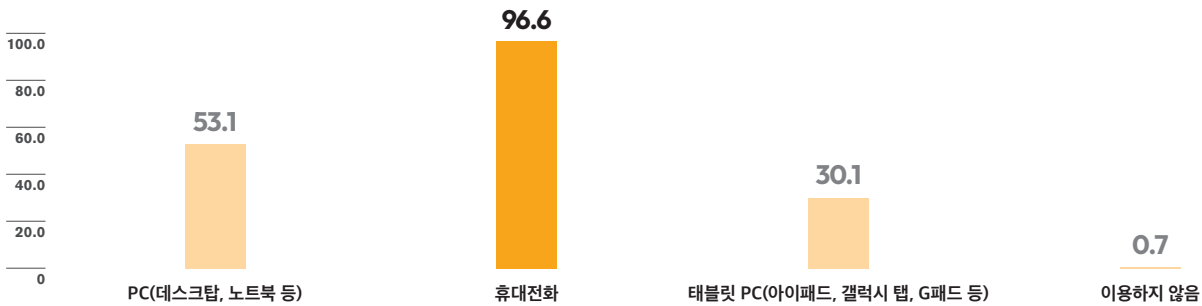
(단위: %)



인터넷 사용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디지털기기로 '휴대전화'(96.6%)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PC'(53.1%), '태블릿'(30.1%) 순이었다. 디지털기기로 이용한 서비스는, '생활정보'(93.7%), '금융거래'(86.2%), '커뮤니케이션'(84.3%), '전자상거래'(81.3%) 순으로 나타나 일상 전반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교육학습'(44.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과 '중졸 이하' 간 활용 격차가 뚜렷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결제'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디지털기기 사용(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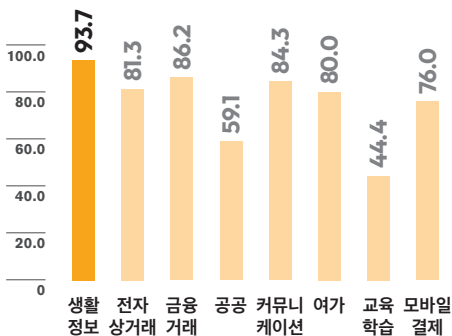
(단위: %)



질문: 귀하께서 인터넷 사용을 위해 주로 이용하시는 디지털기기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디지털 친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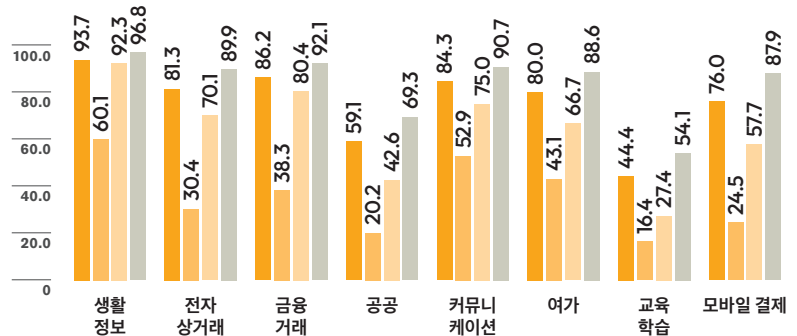
(단위: %)



학력별 디지털 친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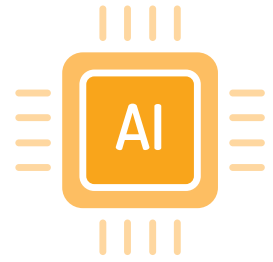
■ 전체 ■ 중졸 이하 ■ 고등학교 졸업 ■ 대졸 이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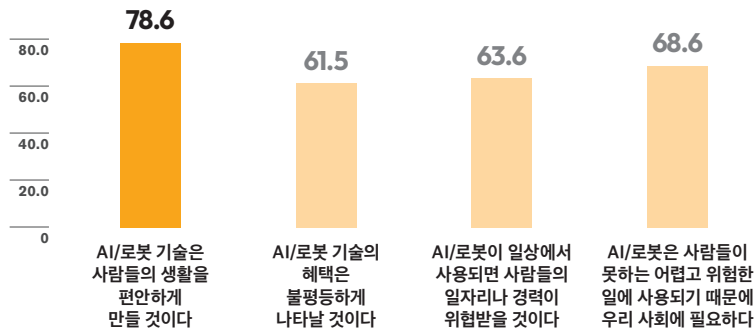
질문: 귀하께서 최근 3개월 동안 디지털기기(PC, 휴대전화, 태블릿PC 등)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서비스 이용 빈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수원시민이 생각하는 AI의 미래는?



AI 관련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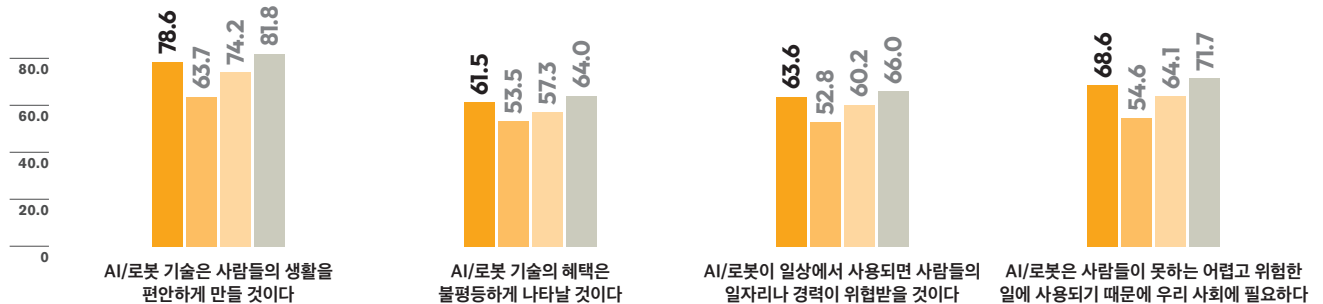
AI와 관련한 인식으로는,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 것이다'는 응답이 78.6%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에 필요하다'(68.6%), '일자리-경력을 위협할 것이다'(63.6%), '혜택이 불평등하게 나타날 것이다'(61.5%) 순으로 나타났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인식과 불평등 우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직에서 생활 편의(84.6%) 및 사회 필요성(81.4%) 응답이 높았으며, 기타 직종에서는 일자리 위협 인식(77.8%)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문: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5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의 그렇다(④+⑤ 응답 비율)

학력별 AI 관련 인식

전체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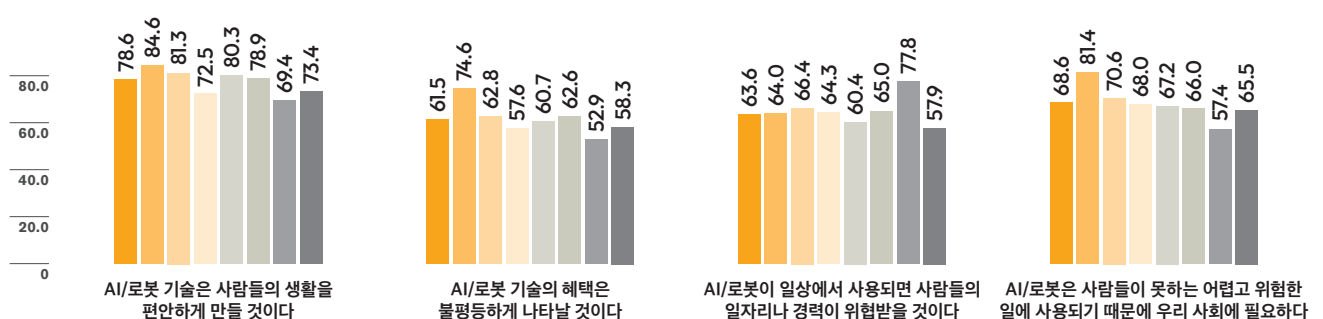
(단위: %)



직업별 AI 관련 인식

전체 관리전문직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서비스직 자영업/프리랜서 기타 무직

(단위: %)



공원 이용 활동, 그리고 그 만족도는?



공원·녹지 이용자 비율

*2024년 94.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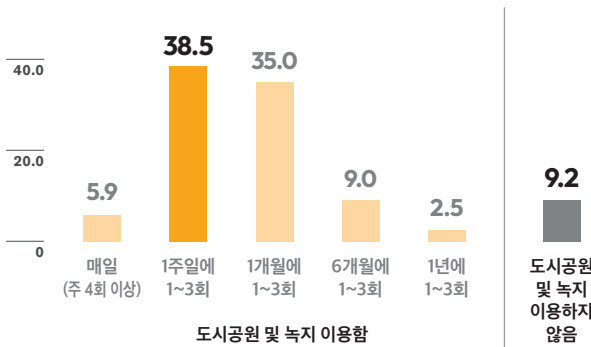
90.8%

자주 이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산책로

수원시민의 90.8%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용 빈도는 '일주일에 1~3회'가 38.5%로 가장 높았고, '1개월에 1~3회'가 35.0%로 뒤를 이었다. 반면 '매일 이용'은 5.9%, '1년에 1~3회'는 2.5%, '6개월에 1~3회'는 9.0%로 나타났으며, 공원 및 녹지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9.2%였다.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형으로는 '산책로(하천변, 가로녹지 등)'가 47.7%로 가장 높았고, '근린공원'(28.3%),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17.3%)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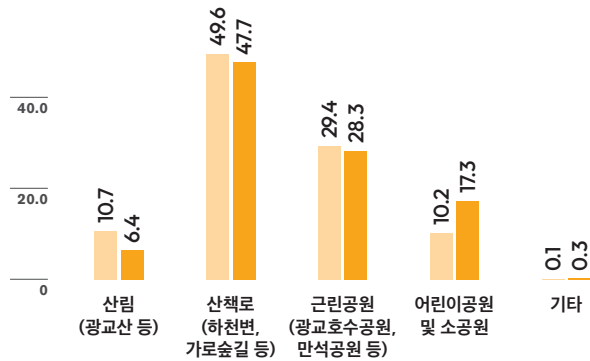
도시공원 및 녹지 이용 빈도

(단위: %)



자주 이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2024년 202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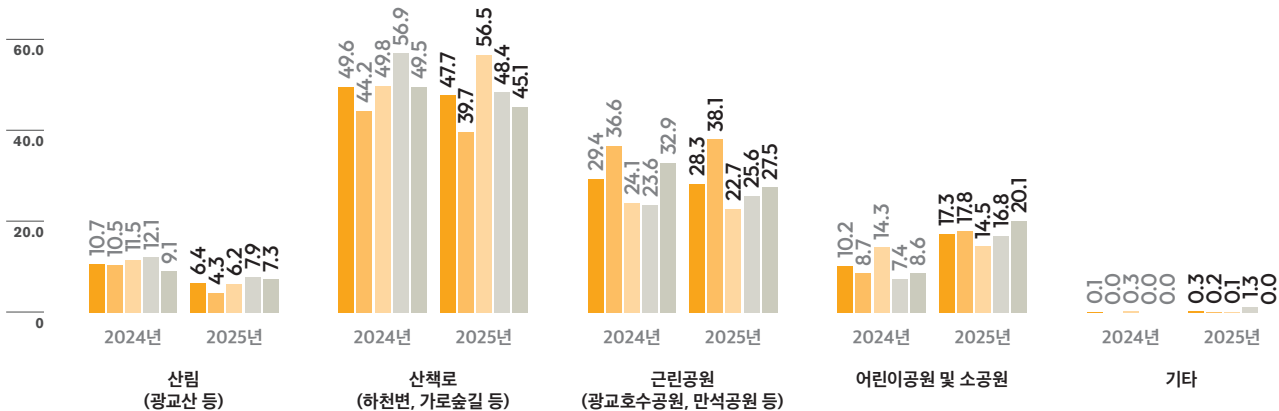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귀하가 도시공원 및 녹지 중 가장 자주 이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구별 자주 이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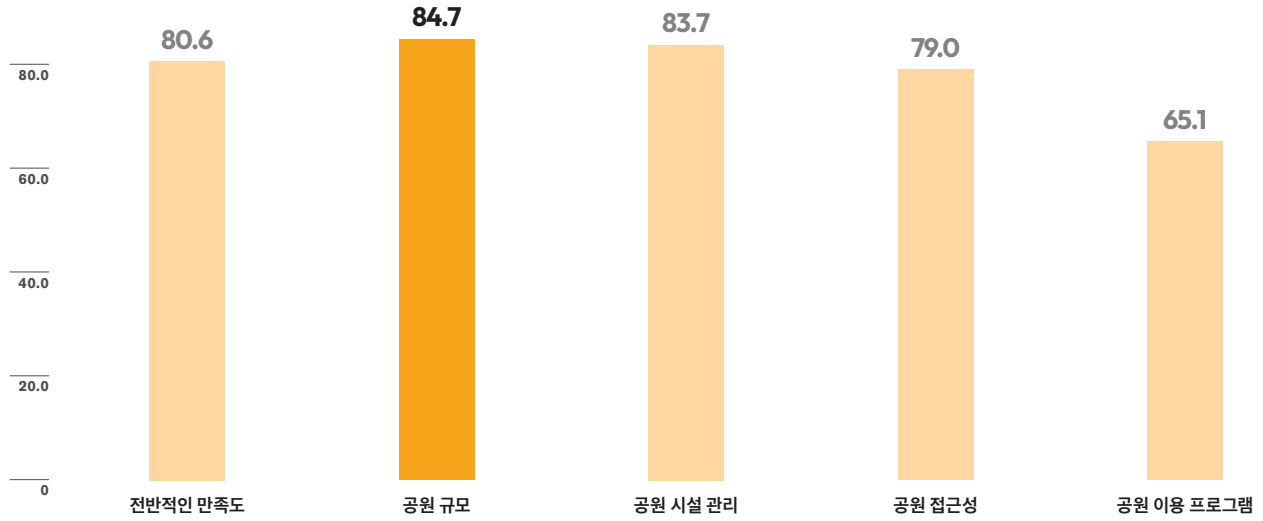
전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단위: %)



도시공원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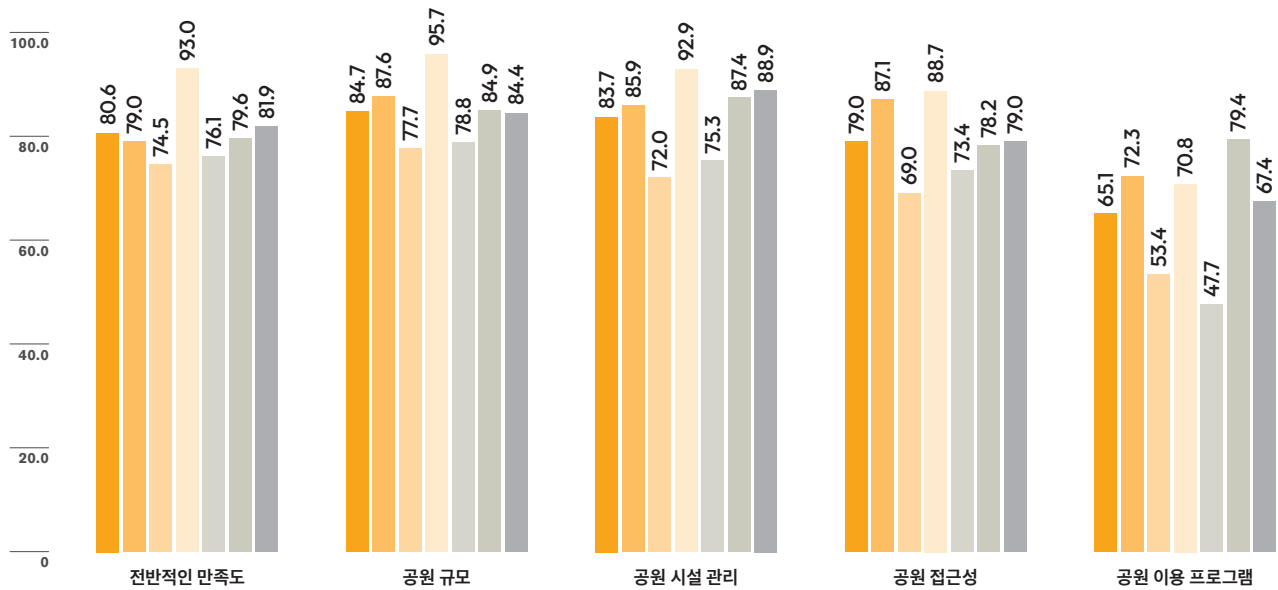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수원시 내 도시공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응답: 7점 척도(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⑦ 매우 만족한다)의 만족(⑤+⑥+⑦) 응답 비율

생활권별 도시공원 만족도

■ 전체 ■ 광고생활권 ■ 남수원생활권 ■ 북수원생활권 ■ 서수원생활권 ■ 영통생활권 ■ 화성생활권

(단위: %)



수원시민은 녹지환경에 만족할까?



녹지만족도
*2024년 71.7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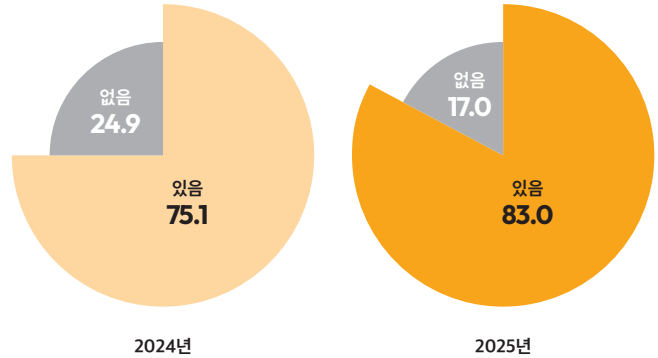
72.0

점

수원시민의 83.0%는 공원 이용이 쉬운 지역(공세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인근의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72.0점으로 전년(71.7점) 대비 0.3점 상승했다. 구별로 보면, 팔달구가 74.2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장안구(73.3점), 영통구(72.1점)가 그 뒤를 이었다.

녹지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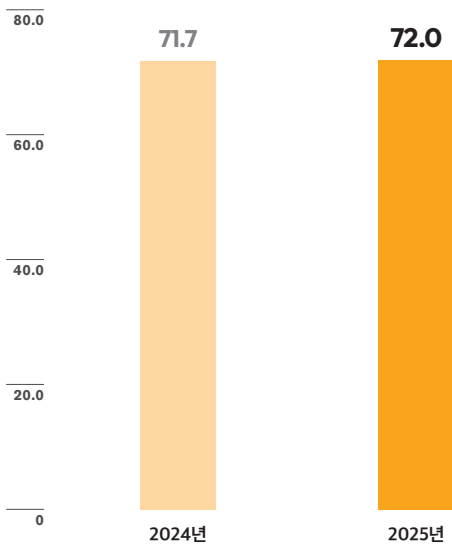
(단위: %)



질문: 귀하가 사는 곳 근처(걸어서 5분 거리 정도)에 녹지(공원, 숲 등)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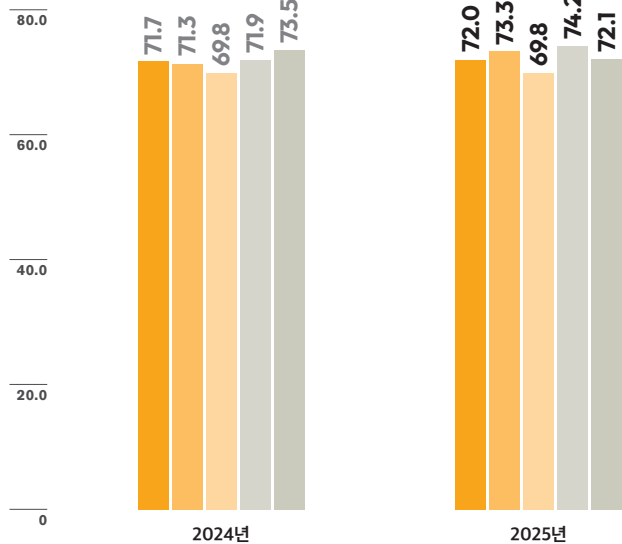
녹지만족도

(단위: 점)



구별 녹지만족도

전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단위: 점)



질문: 귀하가 사는 곳 근처(걸어서 5분 거리 정도)의 녹지(공원, 숲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응답: 5점 척도(① 매우 불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의 100점 환산 평균

수원수목원, 방문 경험과 만족도는?



수원수목원 만족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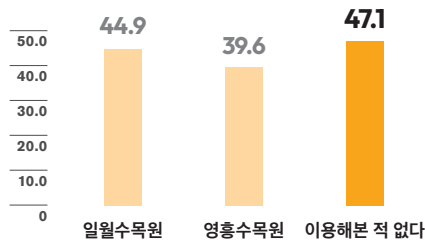
90.3%

개선사항

체험 프로그램 부족

수원시 수목원 이용 경험을 질문한 결과, '일월수목원'은 44.9%, '영흥수목원'은 39.6%가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용해본 적 없다'는 응답은 47.1%로 나타났다. 수목원 이용 만족도는 '방문자센터'(92.5%), '내부시설'(86.7%), '이용프로그램'(76.4%) 순으로 높았으며, 대체로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세대별로는 '노년층'의 방문자센터 만족도(94.1%)와 전반적인 만족도(91.2%)가 가장 높았다. 개선사항으로는 '체험 프로그램 부족'(43.0%)과 '다양한 식재 및 식물관리 부족'(40.6%)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편의시설 부족'(37.4%), '위치·교통 접근성 부족'(27.7%) 순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다양화와 편의 인프라 개선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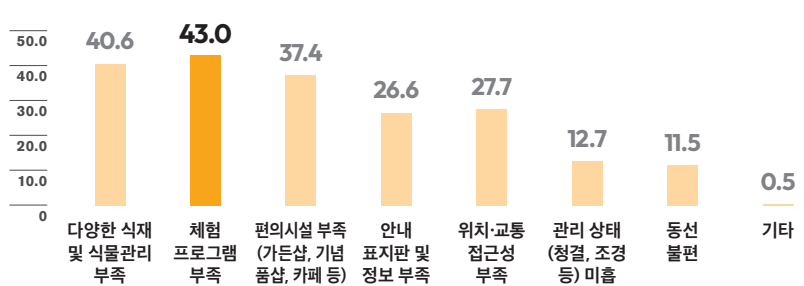
수원수목원 방문 경험(중복 응답) (단위: %)



질문: 귀하는 수원수목원(일월수목원-장안구, 영흥수목원-영통구)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방문한 적이 있으신 경우, 방문한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수원수목원 개선사항(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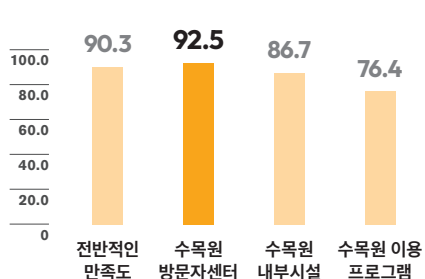
(단위: %)



질문: 귀하가 보시기에 수원수목원(일월수목원-장안구, 영흥수목원-영통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수원수목원 만족도 (단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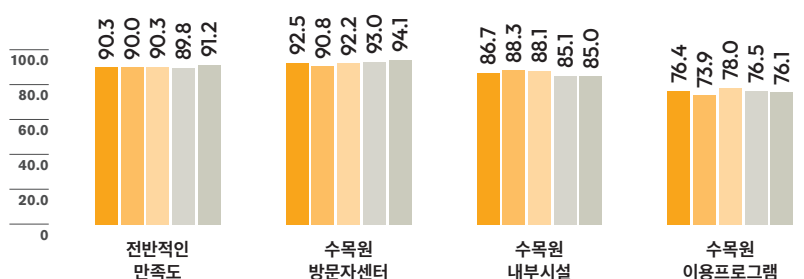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수원수목원(일월수목원-장안구, 영흥수목원-영통구)에 만족하십니까?
 응답: 7점 척도(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⑦ 매우 만족한다)의 만족(⑤+⑥+⑦) 응답 비율

세대별 수원수목원 만족도 (단위: %)

전체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단위: %)



수원시민의 대기환경 만족도는?



대기환경 만족 비율

(단위: %)

67.5%

수원시 대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65.9점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67.5%, ‘보통이다’ 28.2%, ‘만족하지 않는다’ 4.4%의 순이었다. 생활권별로는 ‘광고생활권’(67.6점)과 ‘서수원생활권’(67.3점)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화성생활권’이 63.9점으로 가장 낮았다. 주거 형태에 따른 생활환경 만족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아파트’ 거주자의 만족도가 6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 외 거주’의 만족도는 58.7점으로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낮았다.

대기환경 만족도

■ 만족한다 ■ 보통 ■ 만족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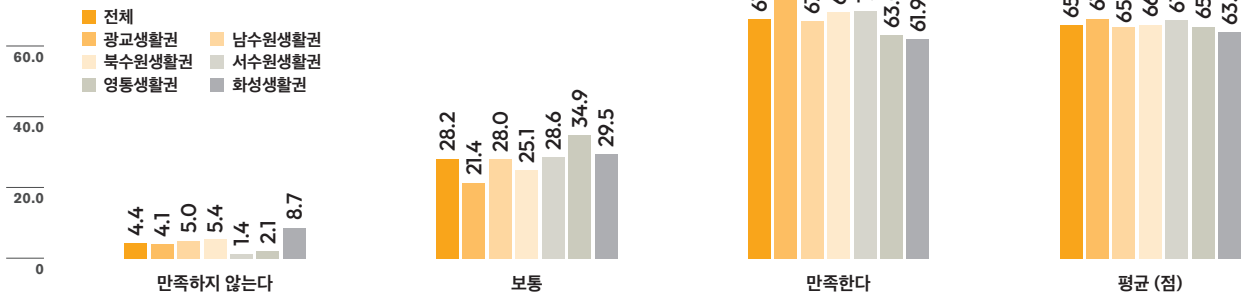
(단위: %, 점)



질문: 귀하가 생활하는 지역의 대기환경(미세먼지, 악취, 공기청정도 등)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응답: 5점 척도(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⑤ 매우 만족한다)의 만족(④+⑤) 응답 비율, 5점 척도의 100점 환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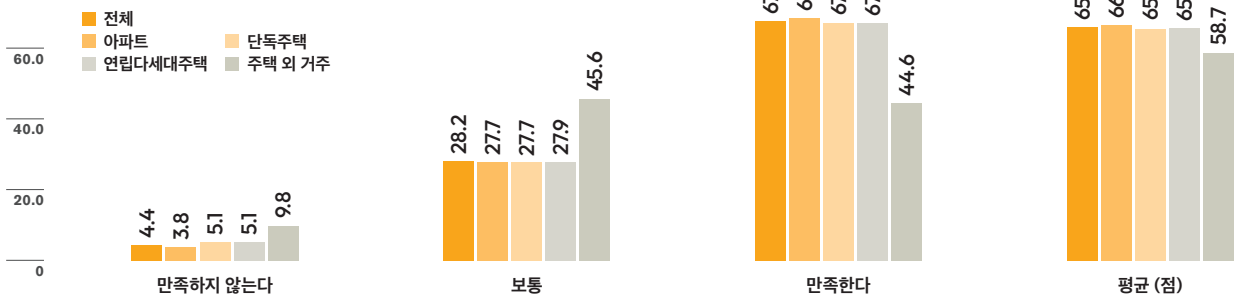
생활권별 대기환경 만족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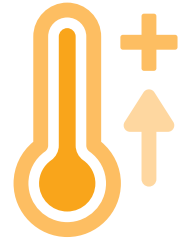


주택유형별 대기환경 만족도

(단위: %, 점)



수원시민이 느끼는 환경 문제, 얼마나 심각할까?



기후변화/이상 기온 심각성

(단위: %)

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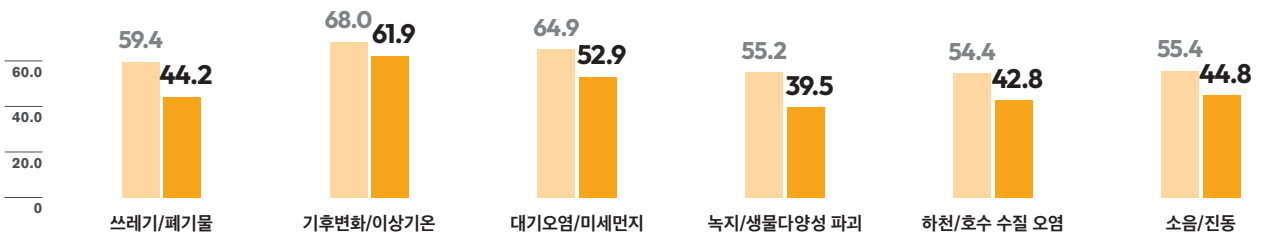
개선 시급한 부분 기후 위기 문제

항목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질문한 결과, '기후변화/이상기온'(61.9%)의 심각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대기오염/미세먼지'(52.9%), '소음/진동'(44.8%), '쓰레기/폐기물'(44.2%)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서 심각성 인식이 낮아졌으나, '기후변화/이상기온'은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직접 경험한 현상으로는 '이상기온'(79.1%)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태풍 및 집중호우'(66.2%), '가뭄'(53.8%), '폭설'(53.4%) 순이었다. 한편 수원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로는 '기후 위기 문제'가 2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기 질 문제'(18.5%), '도시 청결 문제'(17.0%), '수질 오염 문제'(13.8%)가 뒤를 이었다.

수원시 환경문제 수준

2024년 202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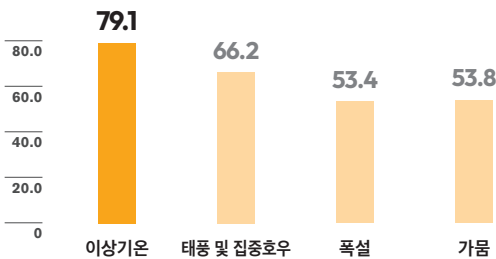


질문: 다음 항목별로 우리 시의 환경문제가 각각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7점 척도(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 ⑦ 매우 심각하다)의 심각(⑤+⑥+⑦ 응답 비율)

기후변화 심각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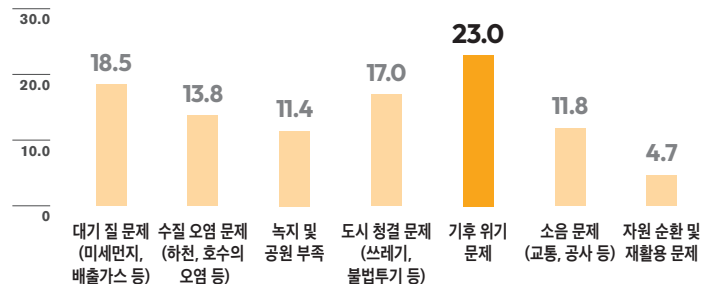
질문: 귀하가 체험하시기에 지난 1년간 발생한 다음의 기후변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7점 척도(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 ⑦ 매우 심각하다)의 심각(⑤+⑥+⑦ 응답 비율)

수원시 환경문제 중 개선이 시급한 부분

(단위: %)



질문: 귀하가 생각하기에 수원시 환경 문제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왜 수원에 살고, 계속 살고 싶을까?



5년 후 수원시 거주 의향

*2024년 9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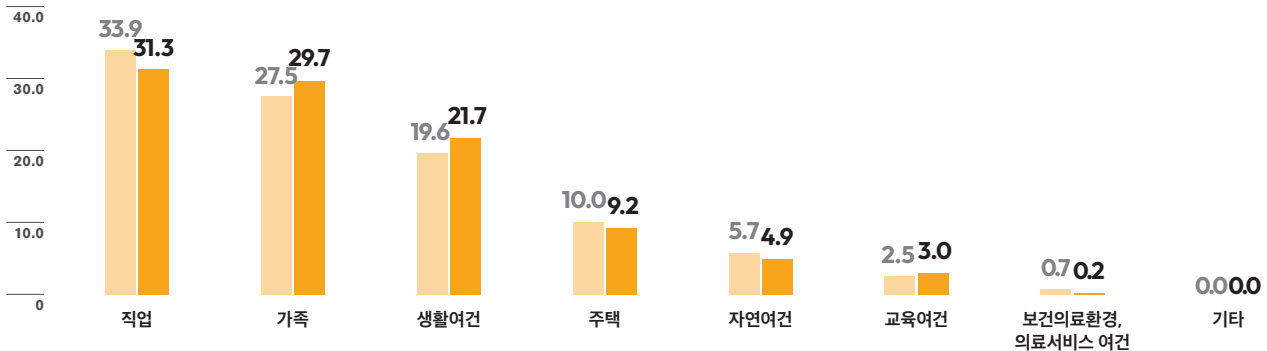
94.9%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된 이유는 '직업'(31.3%)이었다. 그 다음으로 '가족'(29.7%), '생활여건'(21.7%)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비교하면 순위에는 변화는 없으나, '직업' 비중이 소폭 감소한 반면(-2.6%p), '가족'+2.2%p)과 '생활여건'+2.1%p)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과 중년층에서는 여전히 '직장' 요인이 가장 중요한 반면(청년 37.7%, 중년 38.1%), 장년층에서는 '생활여건'(23.5%)과 '가족'(29.7%)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가족'(37.5%)과 '생활여건'(26.3%)이 핵심 요인으로 나타나, 생애주기별로 거주 결정 요인이 차별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된 이유

2024년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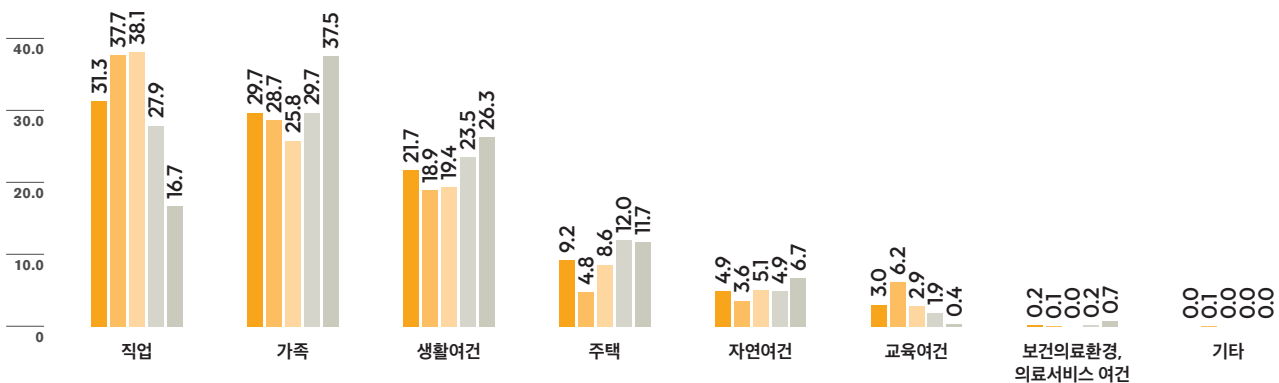
(단위: %)



세대별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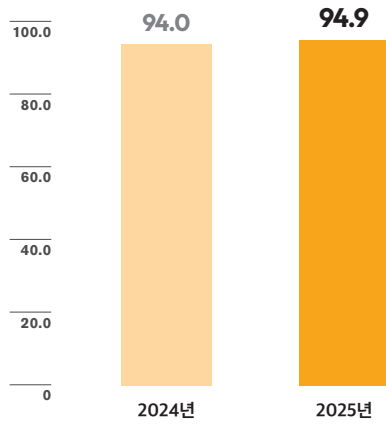
전체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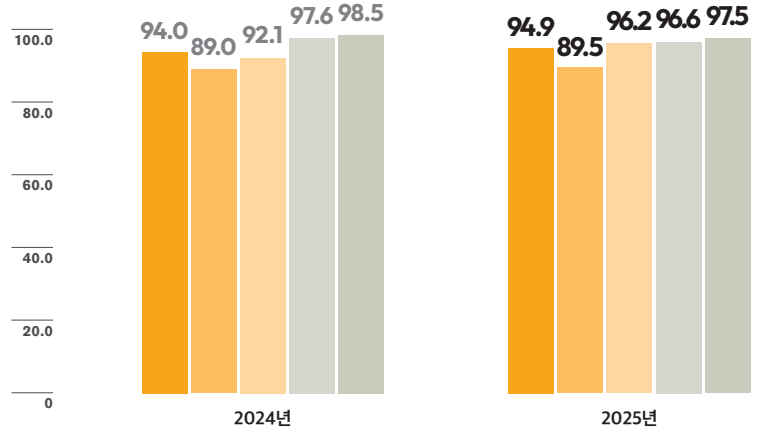
5년 후 수원 거주 의향

(단위: %)



세대별 5년 후 수원 거주 의향

전체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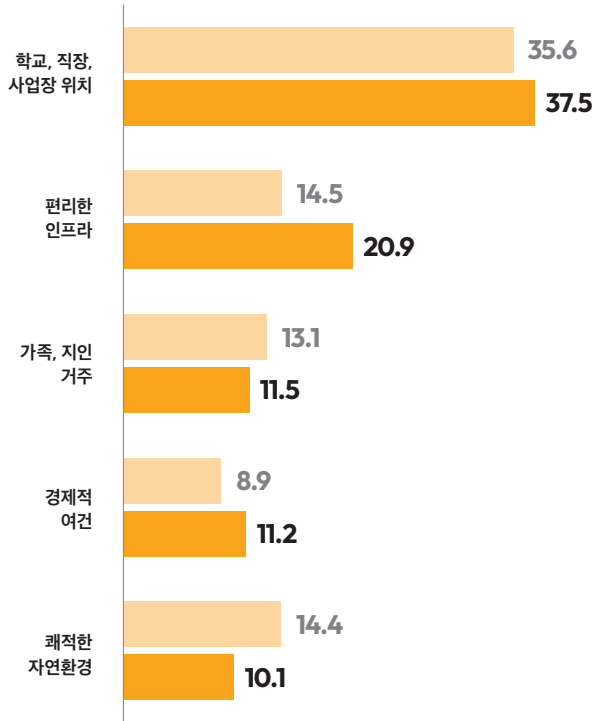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향후 5년 후에도 수원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니까?
 응답: 거주할 의향이 있다 응답 비율

5년 후 거주 의향 이유(상위 5위)

(단위: 점)

2024년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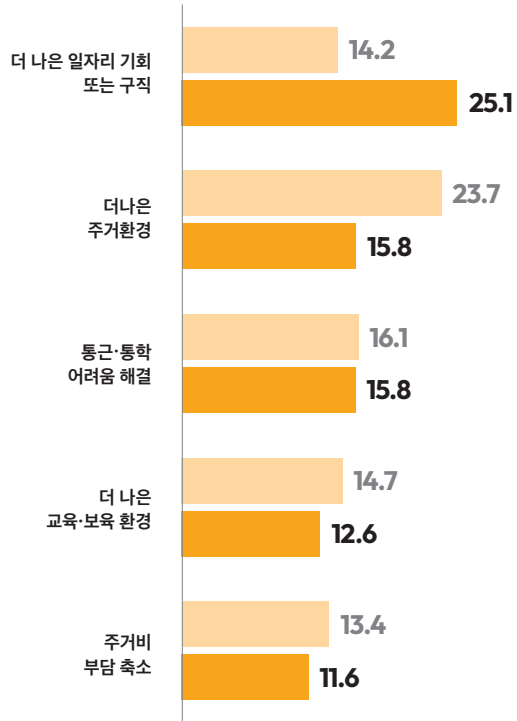


질문: 거주할 의향이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5년 후 비거주 이유(상위 5위)

(단위: 점)

2024년 2025년



질문: 거주할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사회통합과 사회자본

외로움과 고립, 수원시민은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포용도시, 수원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수원시민의 사회적 신뢰는?

수원시민의 보행 만족도는?

수원시민의 안전 위협 요인은?

외로움과 고립, 수원시민은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외로움

*2024년 38.8%

(단위: %)

31.7%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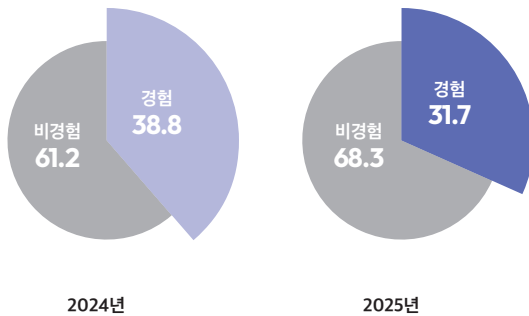
사회적 고립

*2024년 6.9%

수원시민의 31.7%는 지난 2주 동안 외로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38.8%) 대비 7.1%p 감소한 수준이다. 한편 수원시민의 6.6%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노년층, 1인가구에서 높았다. 한편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85.1%로 전년(84.3%)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88.7%로 전년(84.9%) 대비 3.8%p 상승하였으며, '갑작스러운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은 74.6%로 전년(66.0%) 대비 8.6%p 큰 폭으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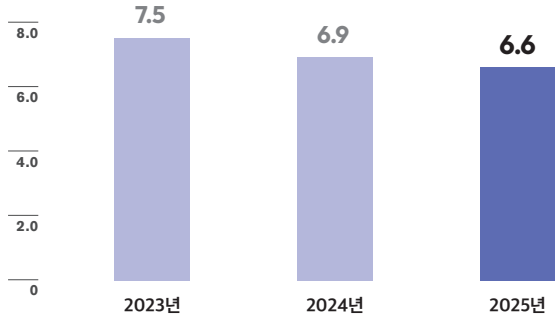
외로움 경험(지난 2주)

(단위: %)



사회적 고립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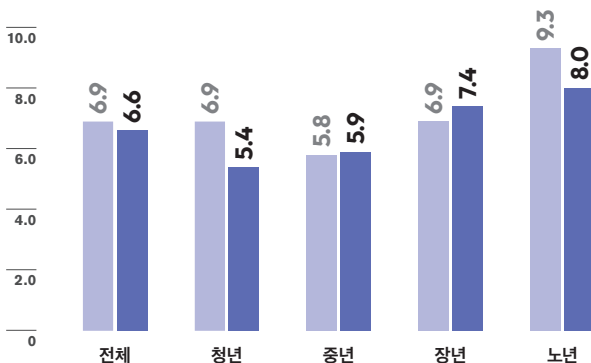
질문: 지난 2주 동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6) 외로움

응답자 특성별 사회적 고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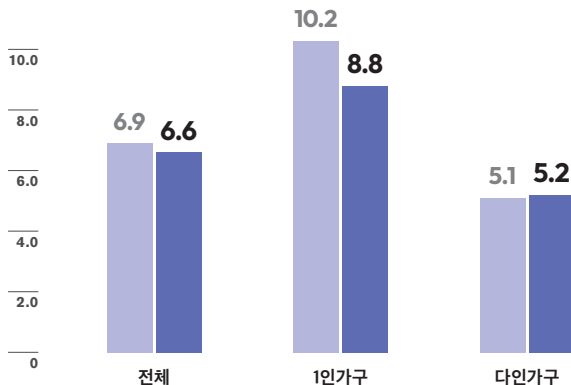
■ 2024년 ■ 2025년

(단위: %)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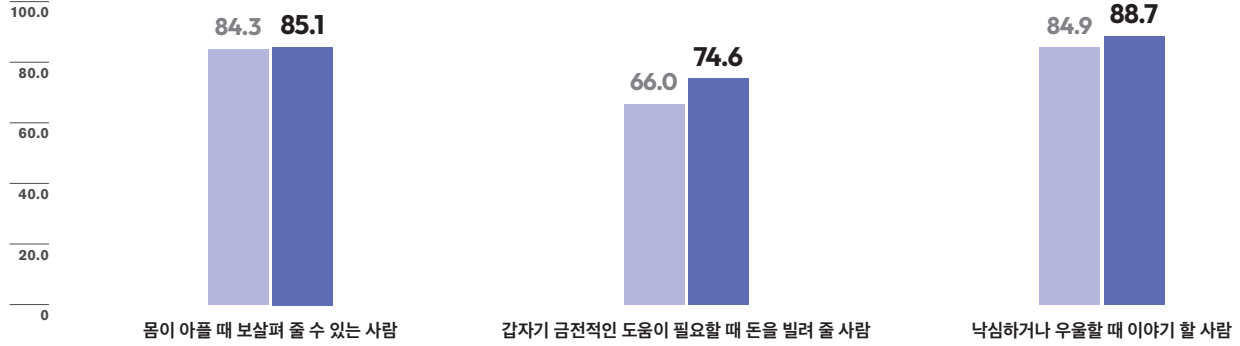
가구원수별



도움을 청할 사람 유무

■ 2024년 ■ 202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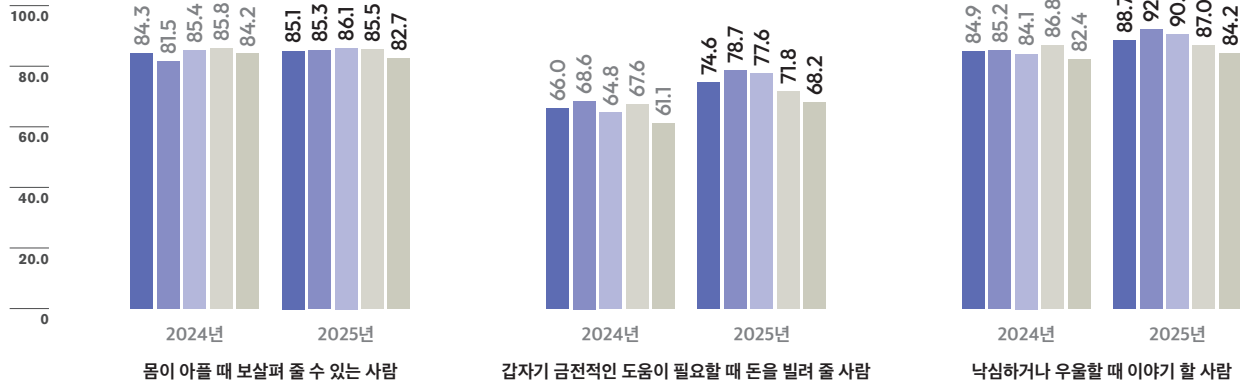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습니까?
 응답: 있다 응답 비율

세대별 도움을 청할 사람 유무

■ 전체 ■ 청년 ■ 중년 ■ 장년 ■ 노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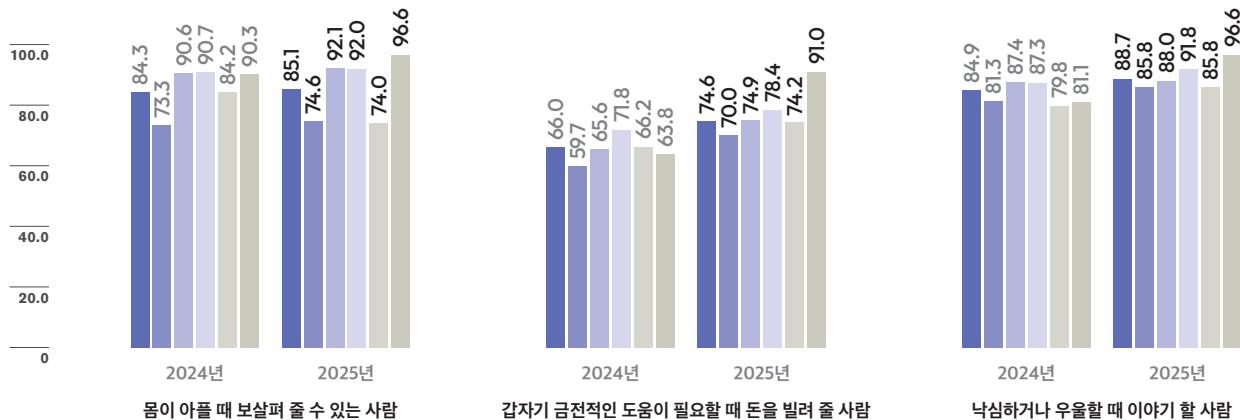
(단위: %)



가구유형별 도움을 청할 사람 유무

■ 전체 ■ 1인가구 ■ 부부가구 ■ 부부+자녀가구 ■ 부(모)+자녀가구 ■ 기타가구

(단위: %)



포용도시, 수원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사회적 포용성이 가장 낮은 집단 성소수자

*2024년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가 가장 낮은 영역 가난은 개인보다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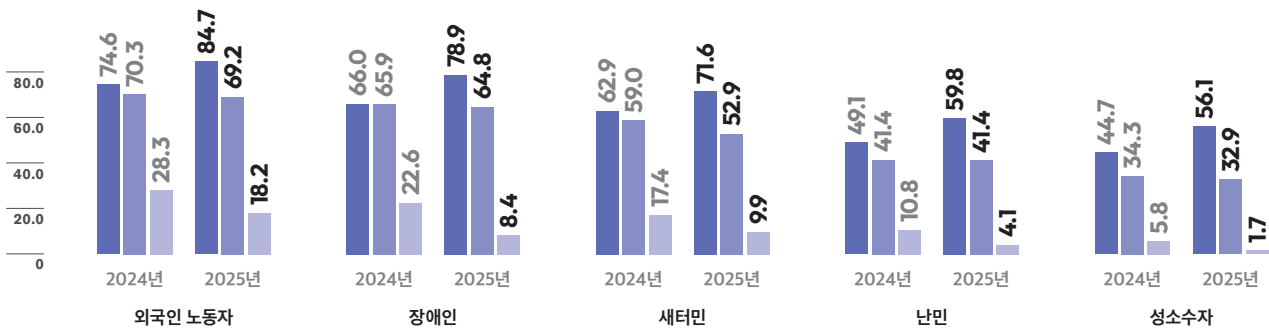
*2024년 어르신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수원시민의 사회적 포용성은 관계의 거리(직장-친구-가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직장동료로서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한 수용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친구'와 '배우자'로는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소수자'와 '난민'에 대한 수용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배우자'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집단에서 수용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해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2%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70.0%), '아동의 기본권은 어른과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한다'(61.2%),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보다 사회제도가 더 책임져야 한다'(60.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난은 개인보다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50.1%, '어르신 복지를 위해 세금 부담 의향'은 54.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사회적 포용성

■ 직장 동료 ■ 친구 ■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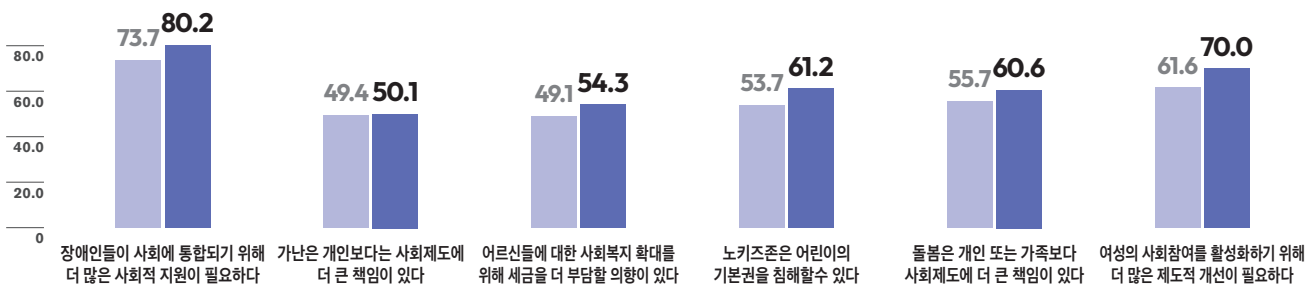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아래의 각 상황에서 다음 각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응답: 그렇다 응답 비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 2024년 ■ 2025년

(단위: %)



질문: 다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설명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응답: 7점 척도(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⑦ 매우 동의한다)의 동의한다(⑤+⑥+⑦) 응답 비율

수원시민의 사회적 신뢰는?



가족 신뢰도

*2024년 83.5점

(단위: 점)

수원시민의 사회적 신뢰는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85.9점)과 친구(74.4점)에 대한 신뢰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이웃(57.1점), 처음 만난 낯선 사람(34.3점), 공공기관(58.5점)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4년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약간 상승한 가운데, 특히 공공기관 신뢰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0점). 구별로 보면, 가족(90.9점)과 친구(78.5점)에 대한 신뢰는 팔달구에서, 이웃(59.5점), 공공기관(60.5점)에 대한 신뢰는 영통구에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36.4점)는 권선구에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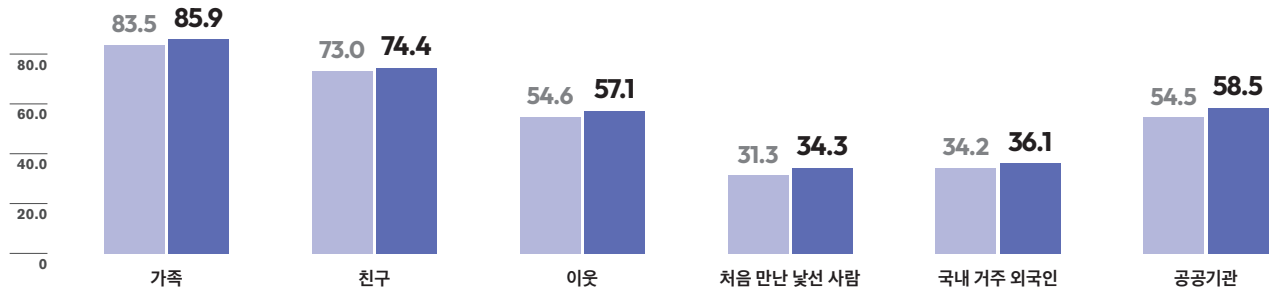
85.9 점

친구 신뢰도
74.4 점
*2024년 73.0점

사회적 신뢰도

■ 2024년 ■ 2025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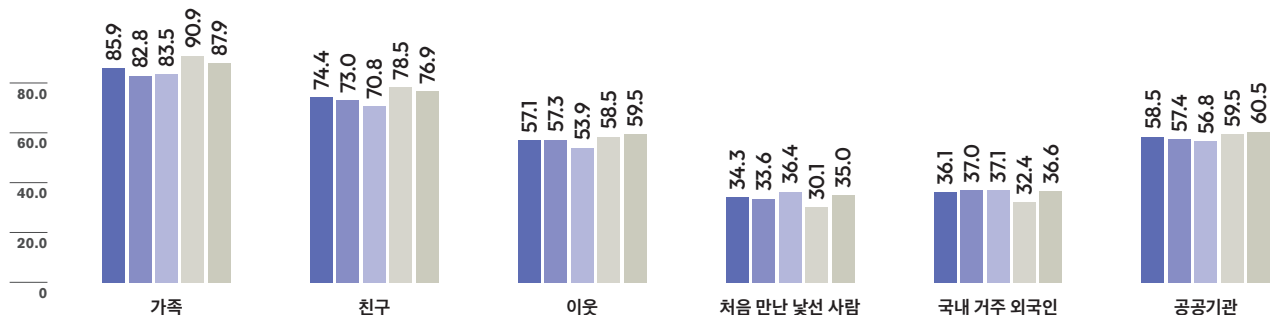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다음 각 사람 또는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응답: 7점 척도(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⑦ 매우 신뢰한다)의 100점 환산 평균

구별 사회적 신뢰도

■ 전체 ■ 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 ■ 영통구

(단위: 점)



수원시민의 보행 만족도는?



주거지역 보행 만족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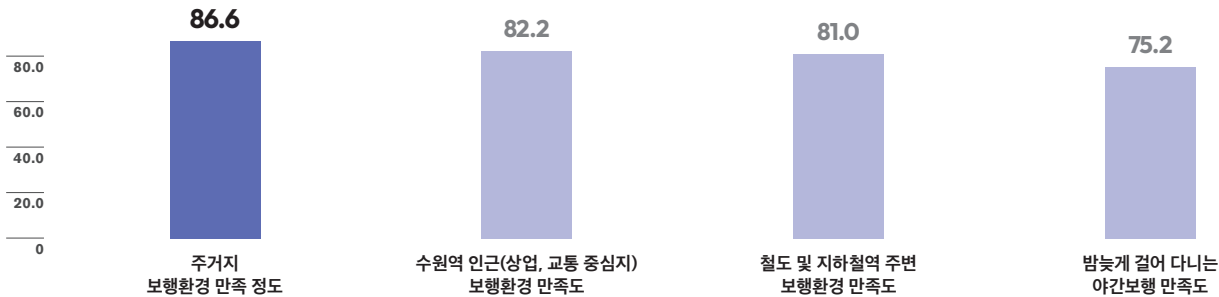
86.6%

수원시민의 보행환경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주거지역 보행환경'이 86.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원역 인근'(82.2%), '철도 및 지하철역 주변'(81.0%) 순으로 높았다. '야간보행'은 75.2%로 가장 낮아 야간보행 안전에 대한 개선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보행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생활권 내 야간 인적이 드물어서'(50.2%)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치안시설 부족'(27.1%), '야간보행 안전시설 부족'(9.8%)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은 '야간 인적이 드물어서'(65.0%)를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남성은 '치안시설 부족'(37.6%)과 '야간 인적이 드물어서'(39.6%)를 유사한 비율로 꼽아 야간 불안 요인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야간보행 불만족 이유 인적이 드물어서

보행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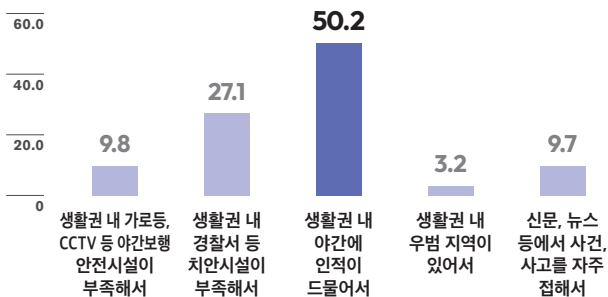
(단위: %)



질문: 귀하는 다음의 수원시 보행환경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응답: 7점 척도(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⑦ 매우 만족한다)의 만족(⑤+⑥+⑦)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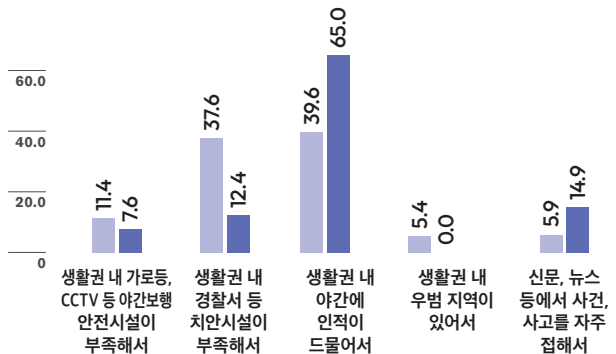
야간 보행환경 불만족 이유

(단위: %)



성별 야간 보행환경 불만족 이유

(단위: %) ■ 남자 ■ 여자



질문: 귀하가 밤늦게 걸어 다닐 때 환경에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원시민의 안전 위협 요인은?



안전 위협 요인 환경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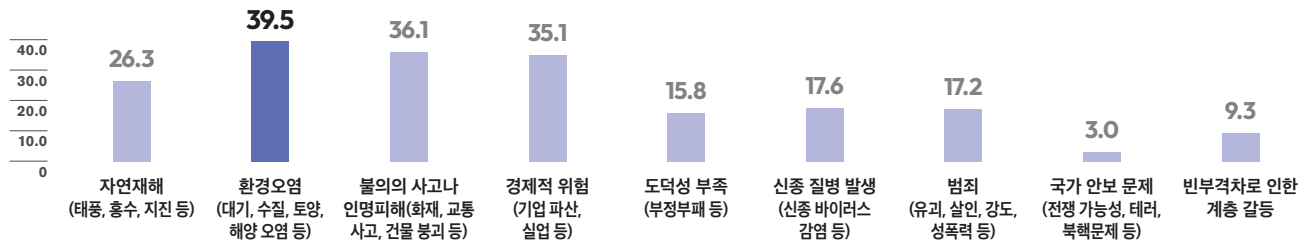
(단위: %)

39.5%

수원시민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안전 위협으로는 '환경오염'이 39.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불의의 사고나 인명피해'(36.1%), '경제적 위협'(35.1%), '자연재해'(26.3%)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안전 위협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노년층에서는 '환경오염'(41.3%)과 불의의 사고(40.5%)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청년층은 '불의의 사고나 인명피해'(38.7%)와 '경제적 위협'(35.7%)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구별로는 장안구에서는 '환경오염'(51.9%)과 '불의의 사고'(47.1%)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진 반면, 권선구는 '경제적 위협'(47.0%)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구별로도 위협 인식의 양상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원시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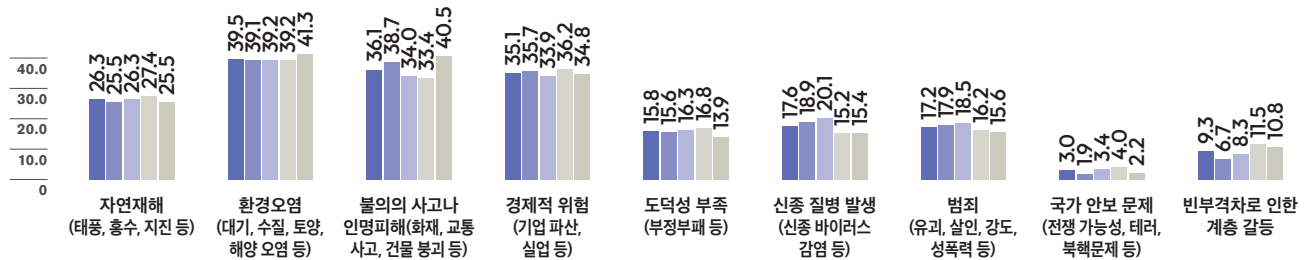


질문: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수원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대별 수원시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1+2순위)

■ 전체 ■ 청년 ■ 중년 ■ 장년 ■ 노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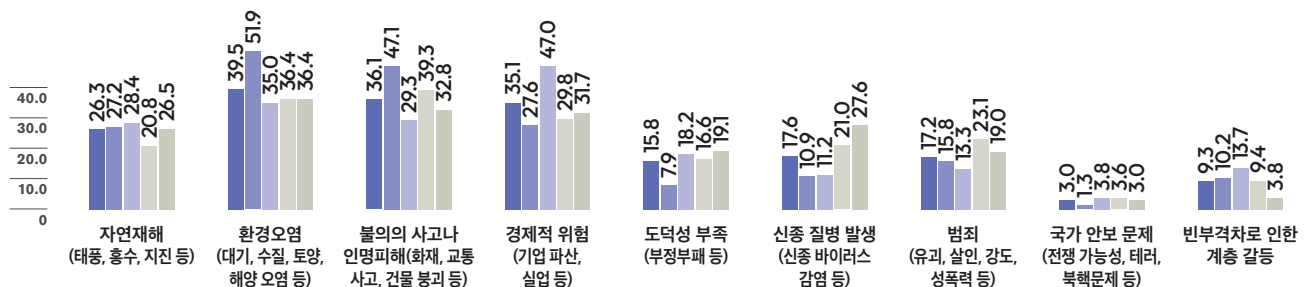
(단위: %)



구별 수원시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1+2순위)

■ 전체 ■ 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 ■ 영통구

(단위: %)



4



가족과 노년

저출생, 시민은 무엇을 원할까?
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일까?
노후생활자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수원시민은 어떤 노후를 원할까?

저출생, 시민은 무엇을 원할까?



저출생 주원인 주거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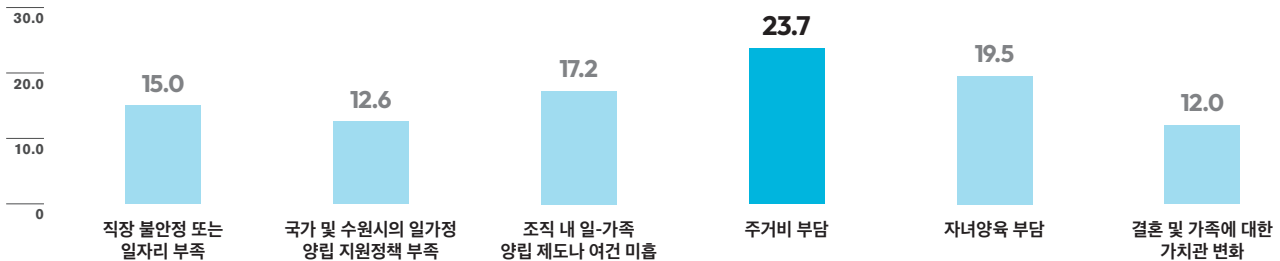
*2024년 일-가족 양립 여건과 환경 변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양육비용 지원

수원시민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주거비 부담(23.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자녀양육 부담(19.5%)', '조직 내 일-가족 양립 제도나 여건 미흡(17.2%)', '직장 불안정 및 일자리 부족(15.0%)', '국가 및 수원시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부족(12.6%)',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12.0%)' 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양육비용 지원 확대'가 27.3%로 가장 높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22.2%), '주거 지원 확대'(22.0%), '교육·돌봄지원 확대'(13.4%), '조직 내 제도 활용 여건 개선'(11.7%) 가 뒤를 이었다. 반면 '다자녀 혜택 확대'(1.7%), '난임 지원 강화'(1.6%)는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 세대, 혼인상태별로 이러한 정책 수요의 우선 순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이 발생하는 주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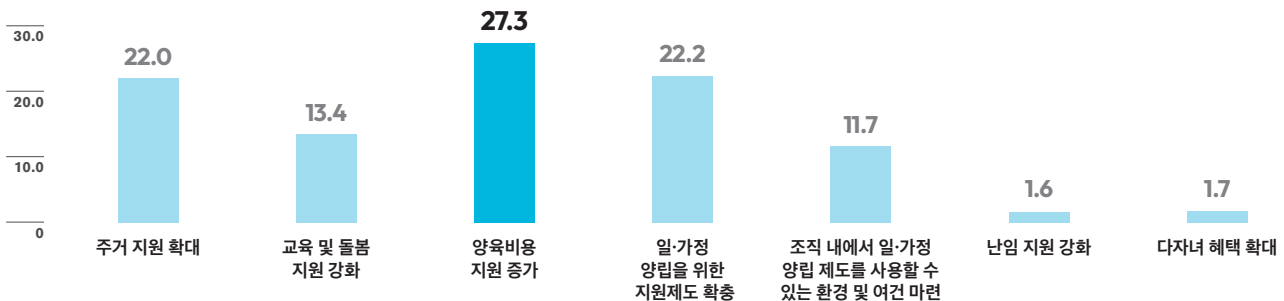
(단위: %)



질문: 귀하는 우리사회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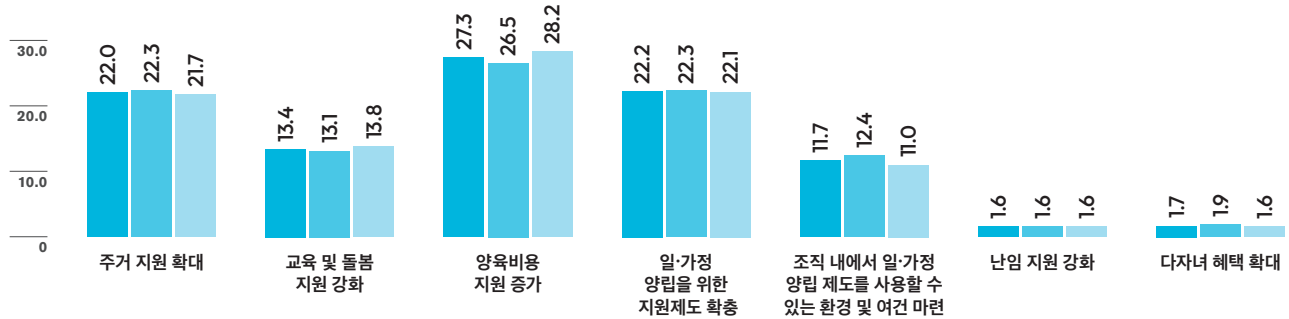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전체 ■ 남자 ■ 여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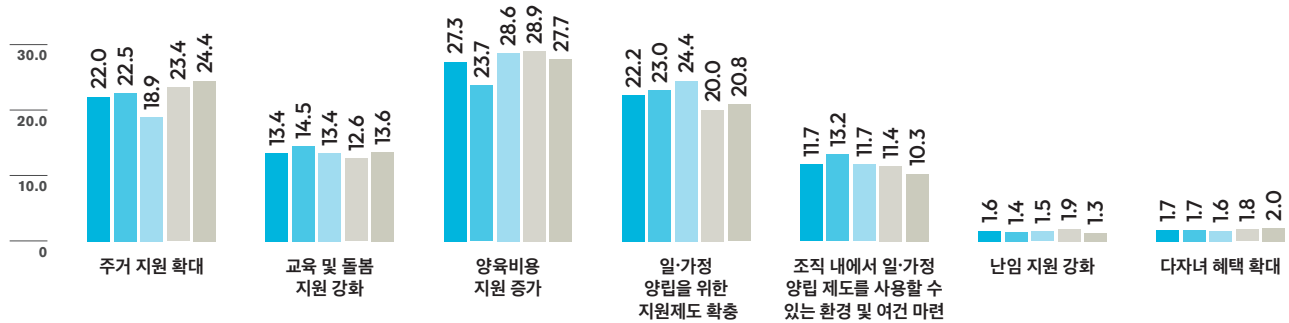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대별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전체 ■ 청년 ■ 중년 ■ 장년 ■ 노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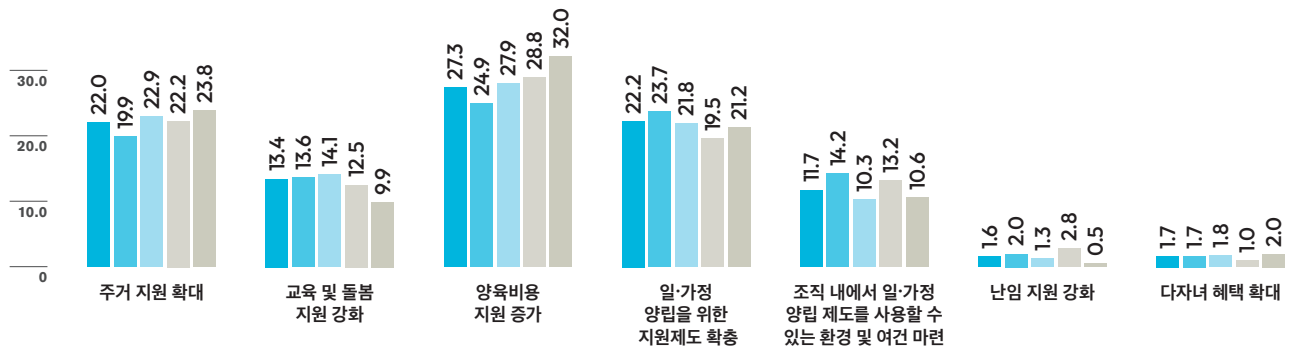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인상태별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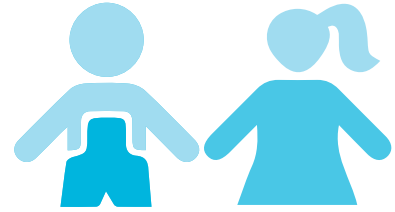
■ 전체 ■ 미혼 ■ 기혼 ■ 이혼 및 별거 ■ 사별

(단위: %)



질문: 귀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일까?



유자녀 비율

(단위: %)

58.9%

계획 자녀 수 평균

1.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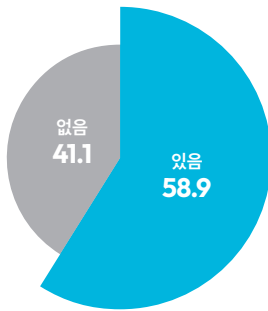
수원시 자녀양육의향

55.1%

수원시민의 58.9%는 자녀가 있으며, 자녀가 없는 만 45세 미만 응답자의 평균 계획 자녀 수는 1.4명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 만족도는 평균 65.0점으로 전년(64.7점)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62.1%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수원시가 자녀 양육하기 좋은 도시인지에 대해서는 평균 63.9점으로 전년(64.2점)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 '그렇다'는 응답도 57.8%에서 55.1%로 줄었다.

현재 자녀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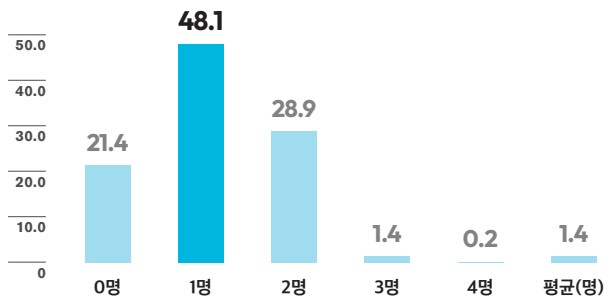
(단위: %)



질문: 귀하는 현재 자녀가 있으십니까?

계획하는 자녀 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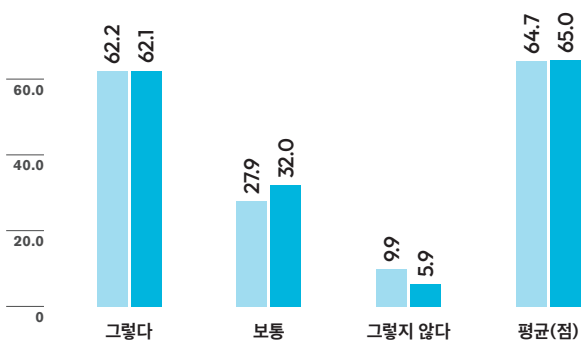


질문: (자녀가 없는 만 45세 미만 응답자만) 귀하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수원시 육아친화도

■ 2024년 ■ 2025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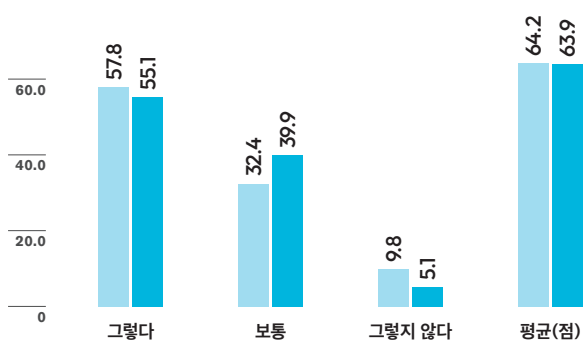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수원은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이다
 응답: 5점 척도(① 매우 그렇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의 그렇다(①+② 응답 비율), 5점 척도의 100점 환산 평균

수원시 자녀양육의향

■ 2024년 ■ 2025년

(단위: % 점)



질문: 귀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 나는 수원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
 응답: 5점 척도(① 매우 그렇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의 그렇다(①+② 응답 비율), 5점 척도의 100점 환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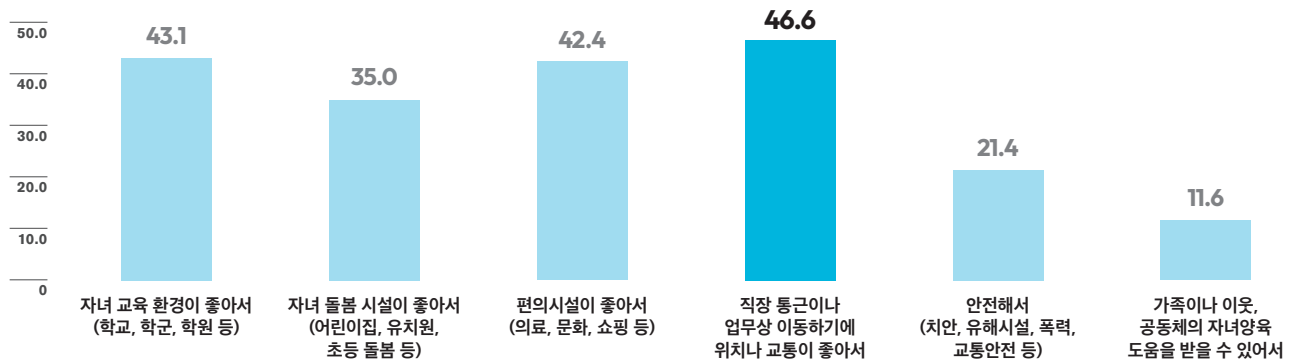
자녀를 키우고 싶은 이유 업무상 이동 위치나 교통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은 이유 교육 환경, 돌봄 시설

수원에서 양육하기 좋은 이유로는 '직장 통근이나 업무상 이동하기에 위치나 교통이 좋아서'를 46.6%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자녀 교육 환경이 좋아서'(43.1%), '편의시설이 좋아서'(42.4%), '자녀 돌봄 시설이 좋아서'(35.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육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자녀 교육 환경 미흡'(40.7%)과 '돌봄 시설 부족'(40.7%)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위치, 교통이 좋지 않아서'(36.4%), '편의시설이 좋지 않아서'(32.7%) 순으로 나타나 교육 및 돌봄 인프라에 대한 개선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원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이유(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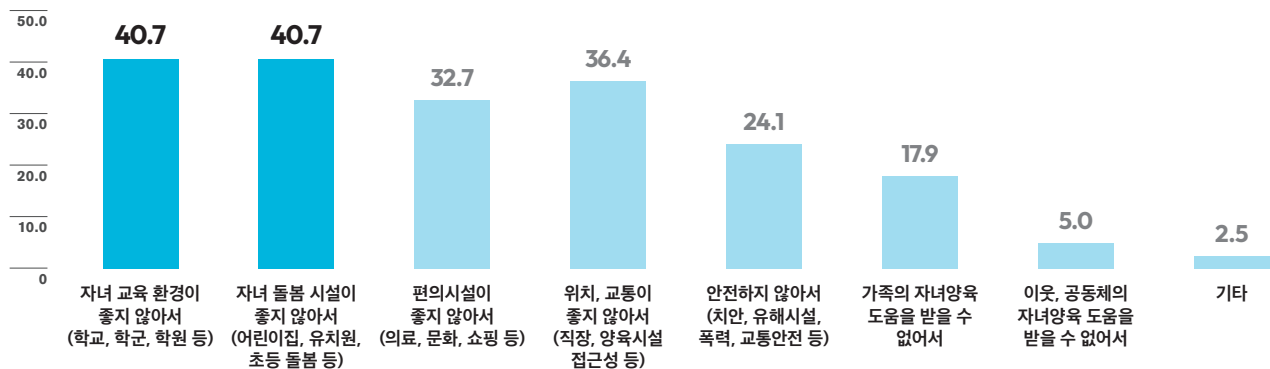
(단위: %)



질문: 귀하가 수원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 순서대로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수원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은 이유(1+2순위)

(단위: %)



질문: 귀하가 수원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 순서대로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노후생활자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노후준비도

*2024년 58.3%

(단위: %)

노후생활자금 마련 방법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은행 저축

*2024년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은행 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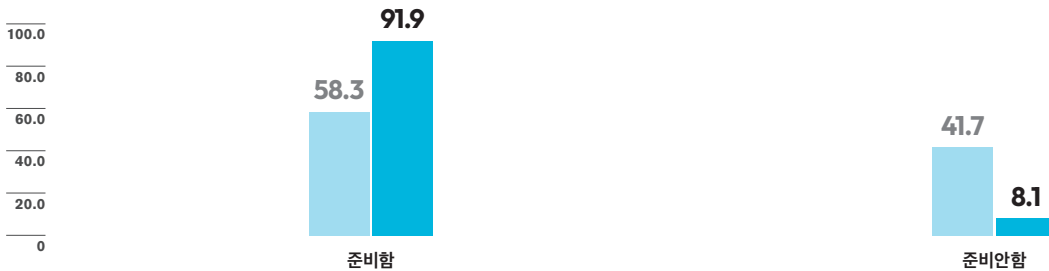
91.9%

수원시민의 91.9%가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58.3%) 대비 크게 증가(33.6%p)한 수준이다. 노후 준비 방식으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7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전년 대비 4.1%p 감소하였다. 반면 '은행저축'은 63.8%로 6.8%p 증가하였고, '보험'도 40.0%로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은 28.1%로 8.3%p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노후생활자금 마련 준비 여부

■ 2024년 ■ 202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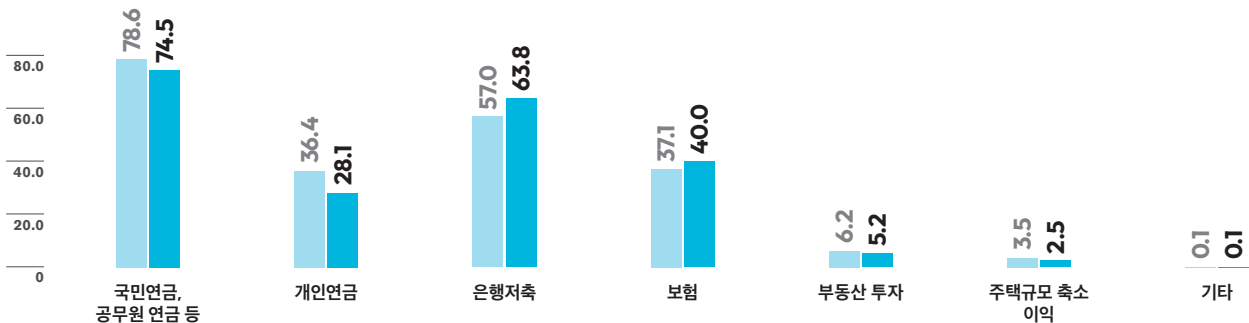
질문(2024년): 다음은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여쭙보겠습니다. 귀하는 노후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질문(2025년): 다음은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여쭙보겠습니다. 귀하가 노후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항목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노후생활자금 마련 준비 방법(중복응답)

■ 2024년 ■ 2025년

(단위: %)



질문: 다음은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여쭙보겠습니다. 귀하가 노후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항목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시민은 어떤 노후를 원할까?



은퇴 후 적절한 월 생활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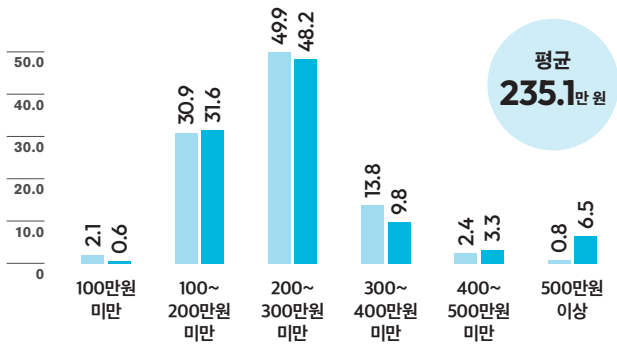
235.1

만 원

희망 노후 활동
취미/교양, 소득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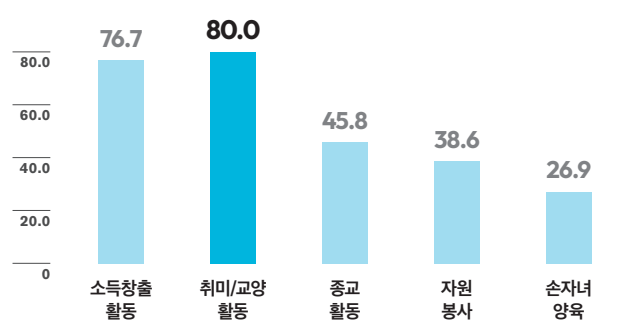
은퇴 후 적절한 월평균 생활비는 235.1만 원이었으며, '200~300만 원 미만'(48.2%)과 '100~200만 원 미만'(31.6%)에 응답이 집중되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500만 원 이상' 구간 비율이 0.8%에서 6.5%로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은퇴 후 주요 활동으로는 '취미/교양 활동'(80.0%)과 '소득창출 활동'(76.7%)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종교 활동'(45.8%), '자원봉사'(38.6%), '손자녀 양육'(26.9%)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은 '종교 활동'(52.0%)과 '자원봉사'(41.8%)에서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남성은 '소득창출 활동'(79.1%)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은퇴 후 적절한 월 생활비 (단위: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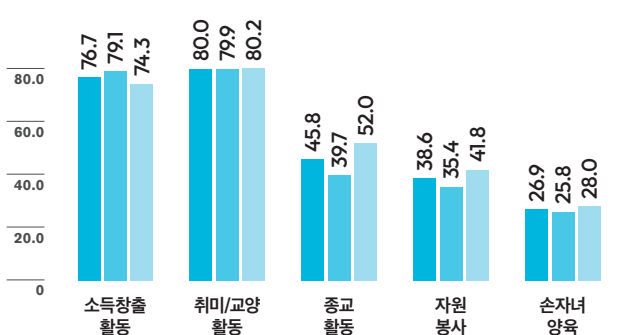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은퇴 후 1인 기준 적절한 월 생활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망 노후 활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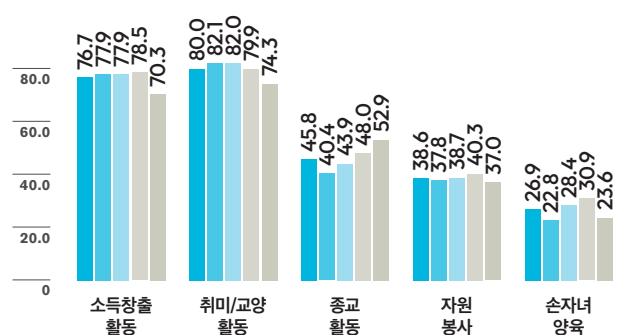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노후에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얼마나 희망하십니까?
응답: 5점 척도(① 전혀 희망하지 않는다 ~ ⑤ 매우 희망한다)의 희망한다(④+⑤) 응답 비율)

성별 희망 노후 활동 (단위: %)



연령별 희망 노후 활동 (단위: %)



5



정책수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 얼마나 될까?

수원시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는?

4개 구별 관심사는 무엇일까?



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 얼마나 될까?



정책관심도

*2024년 48.8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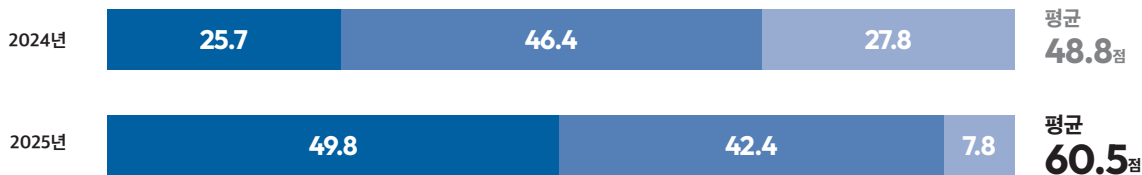
수원시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60.5점으로 전년(48.8점)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수원시 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는 '관심 있다'가 49.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보통'(42.4%), '관심 없다'(7.8%) 순이었다. 2024년과 비교해 보면, '관심 있다'는 응답은 49.8%로 전년(25.7%) 대비 24.1%p 증가한 반면, '관심 없다'는 응답은 7.8%로 전년(27.8%) 대비 20.0%p 감소하여 시민의 정책 관심도가 크게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구별로는, 영통구의 정책 관심도가 62.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60.3점), 권선구(60.0점), 장안구(58.9점) 순으로 나타났다.

60.5 점

수원시 정책 관심도

■ 관심 있다 ■ 보통 ■ 관심 없다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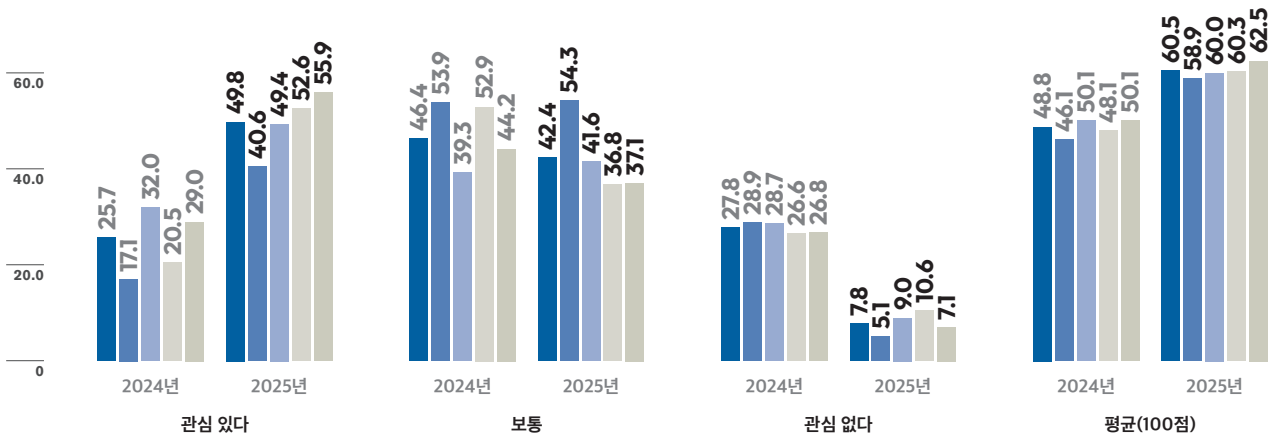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평소 수원시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응답: 관심 없다(① 전혀 없다+② 없는 편이다), 보통(③), 관심 있다(④ 많은 편이다+⑤ 매우 많다), 5점 척도의 100점 환산 평균

구별 수원시 정책 관심도

■ 전체 ■ 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 ■ 영통구

(단위: %, 점)



수원시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는?



수원시 생활 전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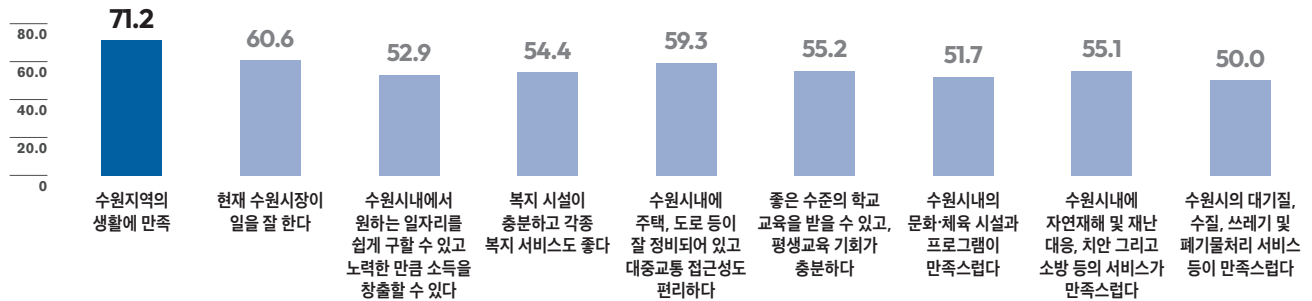
(단위:%)

수원시 생활 전반에 대한 시민 인식을 살펴보면, '수원 지역 생활 만족'(71.2%)이 가장 높았으며, '현재 수원시장 직무수행'(60.6%), '주택·도로 정비 및 대중교통 접근성'(59.3%), '교육·평생학습 기회'(55.2%), '재난 대응·치안·소방 서비스'(55.1%)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 시설'(51.7%)과 '환경 서비스'(50.0%)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구별로는 영통구가 '일자리·소득창출'(68.9%), '복지'(66.1%), '교육·평생학습'(66.0%), '환경'(61.1%)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장안구는 '지역 생활 만족'(78.9%)과 '시장 직무수행'(6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권선구의 생활 전반 평가는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수원시 전반 평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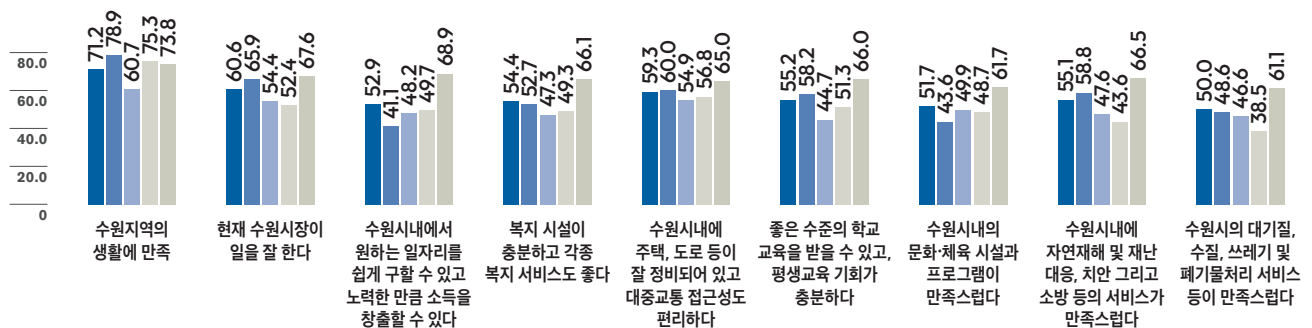


질문: 다음은 시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응답: 5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의 그렇다(④+⑤ 응답 비율)

구별 수원시 전반 평가

■ 전체 ■ 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 ■ 영통구

(단위:%)



4개 구별 관심사는 무엇일까?

장안구
부동산·육아·문화

권선구
주거·교통·일자리·환경·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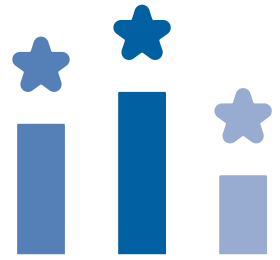
팔달구
복지

*4개 구별 관심사는 소셜데이터분석의 결과임

장안구는 '부동산·육아·문화', 권선구는 '주거·교통·일자리·환경·교육', 팔달구는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타 지역 대비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으며, 영통구는 특정 영역이 돋보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안전'과 '경제'는 개별 구보다 수원시 전체와 함께 언급된 버즈량이 더 많아 시 단위 공통 관심사로 작용하고 있었다.

세부 주제별 관심 수준을 살펴보면, 장안구는 '아파트·주택·재개발·전세·월세·버스·택시·사건·고용·공원·쓰레기' 관련 언급이 타 지역 대비 두드러졌고, 권선구는 '매매·지하철·녹지·여가', 팔달구는 '주차·보육', 영통구는 '범죄·사고·기업·취업·돌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별 관심도

영역	수원 전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주거	4위	2위	1위	3위	5위
부동산	3위	1위	4위	2위	5위
교통	3위	4위	1위	2위	5위
안전	1위	3위	2위	4위	5위
경제	1위	2위	4위	3위	5위
일자리	3위	4위	1위	2위	5위
환경	2위	4위	1위	3위	5위
복지	4위	3위	2위	1위	5위
육아	2위	1위	3위	4위	5위
교육	2위	4위	1위	3위	5위
문화	2위	1위	4위	3위	5위

6



수원서베이 심층분석

수원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삶, 얼마나 다를까?

수원시 1인가구, 세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수원시 X세대의 7가지 특성은?

수원시 청소년은 행복할까?

2025 수원서베이 조사개요

2025 수원서베이 조사내용

수원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삶, 얼마나 다를까?



수원시의 1인가구는 개인화된 공간과 여가 중심의 삶을 즐기지만 고용 불안정(임시·일용직 비중 높음)과 주거비 부담이 크다. 반면 다인가구는 가족 중심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정서적 지지와 행복감이 높지만, 부양·양육과 주거·교육비 부담이 크게 집중된다. 1인가구는 외로움과 주거 불안, 다인가구는 스트레스에 각각 취약하며, 1인가구의 93%가 여전히 수원 거주를 희망한다. 이러한 차이는 자유와 안정, 자율과 책임 사이에서 도시 삶의 균형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1인가구	다인가구
<p>독립적인 생활로 자율성이 높으나 위기 상황 시 경제적·정서적 안전망이 취약한 가구</p>	<p>가구원 간 위험 분산과 상호지지가 가능하나 부양·양육 부담이 집중되는 가구</p>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 참여 활발, 임시·일용직 비중 높고 대기업·공공 집중 • 자기계발 및 여가 중심의 가치 소비 집중 • 장애인·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성이 높고 취향·가치 중심의 모임 선호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직 비중이 높고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고용 구조 • 가족 구성원 부양 및 양육(교육 등) 중심 소비 구조 • 친밀한 관계(가족, 친구 등)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연고 중심의 모임 선호
<p>취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일용직 일자리로 불안정한 고용형태 지속 • 임차 위주의 거주형태, 소득대비 높은 임차료로 주거기반 불안정 •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나 계속근로 의지 높음 (다인가구 대비 노후 비용 높음) • 물리적·경제적 요인에 의한 의료시설 이용 어려움 • 우울감, 외로움, 고립감으로 인한 정신건강 위협 • 청년·여성·장애인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인식 • 복지·교육·문화·안전·생활환경 등 주요 생활 밀착형 서비스 체감 낮음 	<p>취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구직 및 소득창출의 어려움 • 1인가구보다 독립적이고 불규칙한 소득구조에 노출 (자영업 및 프리랜서 비중 높음) • 주택 구입에 따른 부채 비율 높음 •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나 계속근로 의지 높음 • 시간적 제약에 의한 의료시설 이용 어려움 •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건강 위협 • 가족 단위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주거·심리건강·문화여가·권익 인프라 부족
<p>필요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안정적 일자리 및 근로환경 개선, ② 1인 가구 맞춤형 소형 주거 공급 및 주거비 또는 전(월)세 대출 지원, ③ 사회적 연결망 형성 및 고립 예방 프로그램, ④ 생계·자립형 복지 지원, ⑤ 개인 단위의 돌봄·의료 안전망 구축, ⑥ 공공기관 중심의 생활·안전 밀착형 서비스 도입, ⑦ 은퇴 전환기 맞춤형 연계정책 	<p>필요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다인가구 소득 안전망 서비스 지원, ② 가족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 확대, ③ 다인가구 특성을 반영한 주거 지원, ④ 가족 단위의 스트레스·불안 완화 심리 상담 지원, ⑤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 ⑥ 가족 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⑦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는 의료지원, ⑧ 은퇴 전환기 맞춤형 연계정책

수원시 1인가구, 세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청년 1인가구는 주거비와 불안정한 일자리, 노후 준비 공백, 외로움이 두드러지며, 중년 1인가구는 안정된 일자리와 높은 여가·문화 소비, 삶의 만족과 동시에 경제·가족 부담이 집중되는 세대이다. 장년 1인가구는 임시직·장시간 노동이 많아 피로와 스트레스, 정서적 위험이 크고, 자산·사업 관련 부채 비중도 높다. 노년 1인가구는 자영업·일용직 등 불안정 고용과 의료비·생활비 부담,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 돌봄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 복지 체감도 제고와 정서·정신건강 지원이 특히 요구된다.

청년 1인가구	중년 1인가구	장년 1인가구	노년 1인가구
고용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노후·권익 보호 공백이 큰 청년 1인가구	고용·소득은 가장 안정적이나 부담과 책임이 집중된 중년 1인가구	불안정 고용과 장시간 노동 속에서 정서·건강 위험이 확대되는 장년 1인가구	전 영역에서 복지 체감이 낮고 고립 위험이 가장 큰 노년 1인가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용직 비중이 높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 단기적 고용 안정성은 양호 ·문화·콘텐츠 중심의 여가활동과 높은 삶의 만족·행복감 ·노후 준비 미이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아직 필요성 인식 부족'이 주요 이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 참여율과 자영업 매출, 여가비 지출 모두 가장 높음 ·주거·문화 소비가 동시에 나타나는 '끼인 세대' 특성 ·노후 준비는 진행 중이나 생계비 부담을 동시에 인식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중소기업 중심의 고용 구조, 평균 근무시간 상대적으로 깊 ·노후 준비는 이루어졌으나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근로' 인식 강함 ·삶의 만족·행복감 저하, 우울·걱정 비율 증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 참여율·고용 안정성 모두 가장 낮음 ·의료·생활비 중심 소비 구조, 여가비 지출 최소 ·모든 복지 영역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 가장 높음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준비 공백 ·안정·권익 보장 체감도 낮음 ·주거비 부담과 초기 자산 형성의 어려움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부채 부담 집중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장기 노후 대비 부담 증가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안정 고용과 과중한 노동 ·정신건강 취약 ·사회적 관계 약화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돌봄·일자리·주거 등 전 분야 복지 접근성 부족 ·사회적 고립, 외로움, 정신건강 위험 ·낮은 소득과 이동성 제약
필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1인가구 맞춤형 노후 준비 교육·자산형성 지원, 청년 대상 주거·노동 권익 보호 강화, 문화·여가 인프라의 생활권 내 확충(청년 친화형 공공문화공간) 	필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년 1인가구 주거·부채 관리 지원, 중장기 노후 설계 및 전환기 지원, 생활·문화 균형을 고려한 여가·휴식 정책(직장인·1인가구 친화 여가 프로그램) 	필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년 1인가구 대상 안정적 일자리 및 근로환경 개선, 정신건강·사회관계 회복 프로그램 강화, 은퇴 전환기 맞춤형 일·여가 연계 정책 	필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년 1인가구 의료·돌봄 접근성 집중 강화, 생활권 기반 저비용 여가·사회참여 공간 확충, 소득·일자리·정서 지원을 통합한 패키지형 복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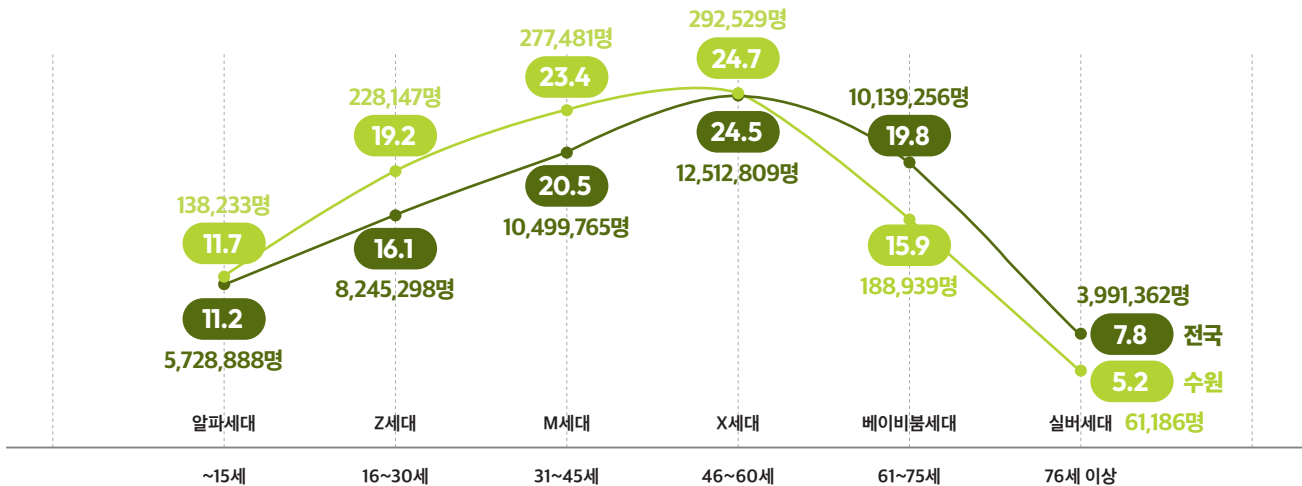
수원시 X세대의 7가지 특성은?



은퇴가 본격화되는 2차 베이비부머이자 인구 구조의 중심축인 X세대(1965~1979년생, 2025년 기준 46~60세)는 주민등록인구 중 최대 비중(전국 24.5%, 수원 24.7%)을 차지한다. X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와 MZ세대를 잇는 가교이자 한국 최초의 개인주의 세대로, MZ 중심 담론 속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고소득·고지출·고부채·고스트레스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 취약성을 지녀 새로운 정책적 조명이 요구된다. 수원시는 M세대(23.4%)와 Z세대(19.2%) 비중이 전국보다 높고 베이비붐세대(15.9%) 비중은 낮아 중·청년층이 두텁고 고령층이 얇은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 구조를 보이는 가운데, X세대는 근로소득 의존도와 주당 근로시간이 전 세대 중 가장 높지만 주택 구입에 따른 부채로 자산 여력은 제한적이고 AI 위협 속에서 경력을 이어갈 일자리도 줄어드는 상황이며,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생계비 부족으로 실천이 어려워 구조적 딜레마를 겪고 건강은 평균 수준이나 스트레스와 정서적 부담은 높아 몸과 마음의 간극이 크고, 여가 시간은 가장 짧지만 지출은 가장 많아 시간을 돈으로 보완하는 경향을 보이며 행복감은 평균이지만 사회적 고립 수준과 위기 시 의지할 사람이 없는 비율이 높아 일상은 괜찮아도 비상시에는 매우 취약한 세대로 나타난다.

세대별 주민등록인구 분포

(단위: % 명)



수원시 X세대의 7대 특성

- 열심히 일해도 자산이 쌓이지 않는다**
근로소득 의존도(89.7%)가 전 세대 중 높은 편이나 가구 부채의 73.1%가 거주 주택 구입에서 비롯되어 소득 대비 실질 자산 여력은 제한적임
- 전 세대 중 가장 오래, 많이 일한다**
주당 평균 근로 시간 42.6시간으로 전 세대 중 최고이며, 근로 희망 이유 1위가 '생계·생활비 마련'(60.3%)으로, 목욕 달성이 아닌 생존을 위한 지속 근로가 특징임
- 경력은 있지만 갈 곳이 좁아지고 있다**
사무직(31.1%)·서비스직(22.6%)·자영업(18.2%)에 분산된 직업 구조로, AI 일자리 위협을 체감(63.7%)하면서도 경력을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하기 어려운 구조에 직면해 있음
-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알지만 현실의 벽이 막고 있다**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의 81.9%가 '생계비 부족'으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실적 여건이 준비를 가로막는 구조적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음
- 몸은 버티고 있지만 마음은 무겁다**
주관적 건강 수준(66.9%)은 평균 수준이나, 스트레스 경험률(65.9%)은 전 세대 중 최고이며 우울감·초조함 등 정서적 부담도 MZ세대보다 높아 몸과 마음의 간극이 뚜렷함
- 전 세대 중 시간은 없어도 여가에 돈을 가장 많이 쓴다**
평일 여가 시간(2.6시간)은 전 세대 중 가장 짧으나, 여가 활동 월평균 지출(34.9만 원)은 전 세대 중 가장 많아 부족한 시간을 비용으로 보완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 일상은 괜찮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혼자다**
전반적 행복감(85.0%)은 평균 수준이나, 사회적 고립도(8.6%)는 전 세대 중 가장 높고 특히, 몸이 아플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아 비상 상황에서의 지지망이 가장 취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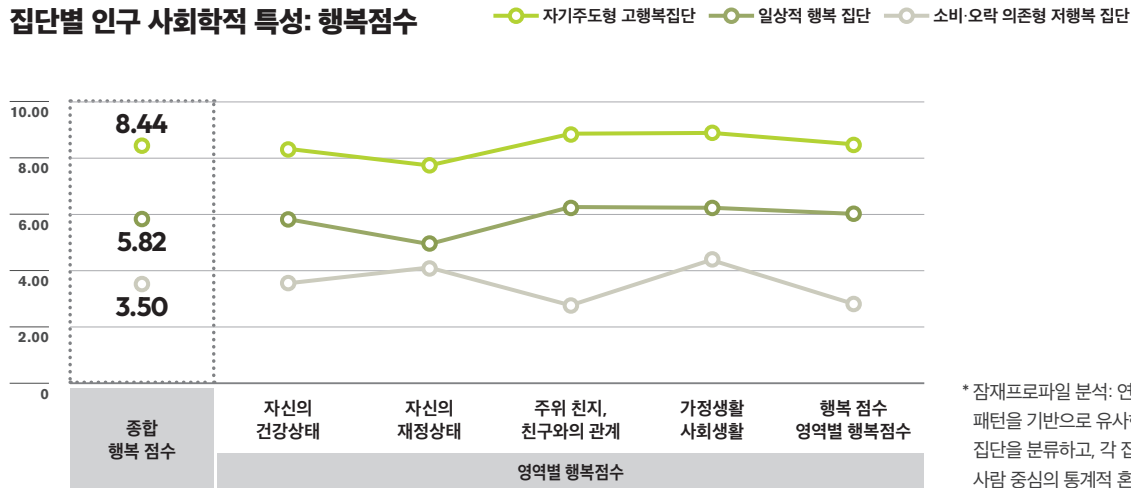
수원시 청소년은 행복할까?



수원시 청소년의 행복 수준은 삶 전반의 인식과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생활습관, 진로 인식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은 행복감·존재 가치감·건강·삶의 만족도가 높고, 불안·우울·외로움 등 정신건강 위험이 낮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많고, 규칙적인 건강 활동과 자기계발형 활동 참여가 활발하다. 일상적 행복 집단은 기본적인 삶의 만족과 정서 안정, 건강 활동과 사회참여 수준이 중간 정도로 유지되며, 일자리 선택에서도 수입·적성·안정성을 고르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은 초조함·우울감·외로움 수준이 매우 높고, 식사·수면·운동 등 생활습관 실천율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과 위기 시 도움 자원이 부족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크고, 국제교류·모험 등 일상 탈피 성향의 활동을 선호하는 가운데 일자리 선택 기준은 적성과 수입에 편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집단별 인구 사회학적 특성: 행복점수



* 잠재프로파일 분석: 연속형 측정 변수들의 패턴을 기반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하위 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의 특징을 파악하는 사람 중심의 통계적 혼합 모형 분석 방법

지난 한주간의 삶의 질

(단위: %)

구분	긍정 감정				부정 감정	
	행복감	존재 가치감	건강	삶에 대한 만족	외로움	걱정
전체	59.8	57.9	57.5	56.1	29.4	49.5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	86.6	86.6	85.4	85.4	19.5	40.2
일상적 행복 집단	48.6	44.1	44.1	42.3	32.4	54.1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	14.3	19.0	19.0	14.3	52.4	61.9

질문: 지난 한 주 동안 각 항목에 대해 느끼셨던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사회적 고립

(단위: %)

구분	사회적 고립도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갑자기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줄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할 사람
전체	7.9	88.8	80.4	79.4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	8.5	90.2	86.6	90.2
일상적 행복 집단	6.3	89.2	78.4	75.7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	14.3	81.0	66.7	57.1

질문: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습니까?

*사회적 고립도: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갑자기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줄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할 사람이 모두 없다고 응답한 비율

2025 수원서베이 조사개요



수원서베이는 수원시의 현재 상황과 중장기 사회 변화를 반영한 기초 통계 생산,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그리고 서베이 홍보를 통한 시정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수원서베이는 수원시민 3,023명을 대상으로 인구 동향, 삶의 질, 경제 및 사회 활동 등 시민의 삶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원서베이 결과는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수원시민의 생활상과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체감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수원시 및 시정연구원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구 분	내 용
모집단	주민등록 기준 2025년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표집틀	<p>통계청 집계구</p> <p>* 집계구 제외 대상 : 학교, 공장, 병원 등의 기숙사 거주자, 양로원, 고아원, 특수병원 등 특수시설 거주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 등의 군 복무자, 교도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의 수감자, 장기 해외 출장·체류자, 외국인 등</p> <p>* 집계구 분류: 조사 효율성을 위해 아파트 비율이 60% 이상이면 아파트 집계구, 60% 이하면 일반 집계구로 분류</p>
표본 크기	<p>목표 : 3,000명</p> <p>완료 : 3,023명 (95% 신뢰수준에서 ±1.8%p)</p>
표본배분 및 추출	다단계층화집락추출 (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조사 대상자 선정	수원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대표 1인
조사 방법	<p>TAPI (면접원 가구방문을 통한 태블릿PC 활용 면접조사)</p> <p>* 종이설문지를 활용한 PI, 이메일/스마트폰을 활용한 CAWI/CAMI 병행</p>
조사 기간	2025년 8월 25일 ~ 2025년 11월 10일

2025 수원서베이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수원시 인구동향	가구 현황	1인가구와 다인가구 여부, 맞벌이 여부, 가구내 만 15-18세 청소년 거주 유무, 가구 내 은둔형 외톨이 유무, 반려동물 유무
	가구 재정 및 생활 형태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 월평균 가구소득과 부채, 가계 지출 순위, 주거비 부담
수원시민 삶의 질	일상생활과 행복	한 주간 삶의 질, 영역별 행복감, 삶의 핵심 가치와 생활환경 만족도, 디지털기기 이용 경험, AI 관련 의견
	저출생과 노후	저출생의 원인 및 저출생 대응 필요정책, 결혼 및 자녀 양육 의향, 자녀수(기대, 실제), 노후 대비 여부 및 노후 자금 마련 방법, 은퇴 후 적정 생활비, 노후 준비 정도, 적정 및 희망 은퇴 연령
수원시민의 경제 및 사회활동	수원시민의 경제활동 상황과 소득	경제활동 비율 및 고용 형태, 자영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근무 형태, 평균 근무 일수 및 시간, 근로 사업체 유형 및 직종, 구직 노력 여부 및 구직활동 방식, 필요한 지원, 비경제 활동 이유와 구직 관련 활동 계획, 소득 종류별 유무 및 범위
	수원시민의 거주 현황과 의향	수원시 거주 기간,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된 이유, 5년 후 수원시 거주 의향 및 이주 계획
	수원시민의 생활	통근·통학 여부, 지역, 수단, 소요 시간, 만족도 및 불편 사항, 평상시 주 이용 교통수단, 수원시 환경 구축 정도 인식 및 만족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구축 정도
	수원시민의 여가생활	평균 여가 시간과 충분성 인식, 지난 1년 오프라인/온라인 경험 여가활동, 2025년 방문한 수원시 실외 여가 공간, 수원시 내 여가활동 참여 시 제약 및 수원시 내 여가활동 평가,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참여
수원시의 공간과 환경	수원시의 공원과 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이용 빈도, 자주 이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도시공원·녹지·수목원 이용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 근린 공원 및 녹지 만족도, 도시공원 만족도, 수원수목원 만족도
	수원시민의 환경문제 인식	수원시 환경문제 심각도 인식, 대기환경 만족도, 환경보호 실천, 다화용기 사용
	수원시의 안전 환경	수원시민 체감 안전 수준, 수원시민 보행환경 만족도, 야간 보행환경,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
	수원시의 의료 및 복지환경	정신적·육체적 건강 자가 진단, 의료시설 접근성, 지난 2주간 의료, 의료서비스 경험, 수원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복지 시설 및 만족도, 수원시 제공 복지서비스 정책 우선 순위 및 만족도, 공공시설물 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수원시민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참여	수원시민의 사회적 관계망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유무, 사회적 소통 빈도(대면/비대면), 사회적 신뢰도
	수원시민의 공동체 의식	사회적 약자 관련 인식, 사회적 포용도, 경제·사회, 주관적 계층 인식, 삶의 자유도
	수원시민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기여 활동 경험, 소속 사회단체, 수원시 정책 참여 경험, 자부심
시정인식 및 기대사항		수원시 정책 관심도, 정책분야 중요도 및 만족도, 수원시 전반 평가

한눈에 보는 수원 2025

발행일	2026년 6월
발행인	김성진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작성	도시데이터분석실 박민진, 박영미, 채우리
디자인편집	니시드컴퍼니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한눈에 보는 수원
2025

2025



수원시
SUWON CITY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비매품 무료

93310



9 791168 192133



ISBN 979-11-6819-213-3